

해외직구·병행수입 '먹튀·짜퉁' 지뢰밭

작년 '직구' 1115만9000건 40% ↑... 소비자 불만 동반 상승
병행수입통관인증 때 가짜상품도 통과... 당국 '나몰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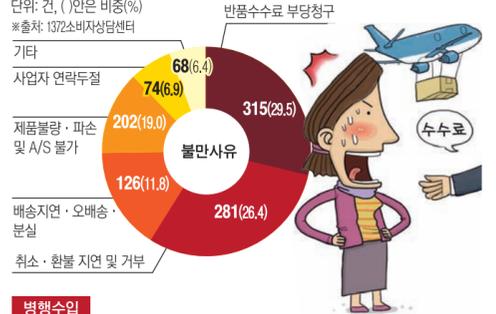
해외 직구(직접구매)와 병행수입 피해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없이 주의만 당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는 비싼 수입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1115만9000건을 기록, 1년 전(794만4000건)보다 4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작년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1551건으로, 전년(1181건) 대비 31.3% 급

증했다. 올 들어서는 1월에만 221건이 접수돼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국내 구매대행업체'의 불공정행위 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유형을 분석해 보면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 및 수수료 요구'가 2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지연·거부' 26.4%, '배송지연 불만'이 19%였다. 또 '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경우도 6.4%나 됐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속하고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 작년 구매대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재가 없으니 불공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병행수입품의 경우 '짜퉁(모조품)'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병행수입통관인증제도'가 오히려 '짜퉁 천국'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행수입통관인증제도'는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Quick Response)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해 주는 서비스다. 문제는 100% 진품 보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관인증제도는 진품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수입했다는 점만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관세청에 정품관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짜퉁을 구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통관인증제도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통관인증상품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통관인증제 대상을 현 236개 상표에서 350개 상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 통관인증제도는 세관을 통해 버젓이 수입되는 짜퉁 검수에는 속수무책"이라면서 "통관인증제도의 보완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애·이다람 기자 isa@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당 현황



항목	내용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	통관표지(QR코드) 발행 대상 236개에서 350개로 확대,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 경과로 완화
신뢰성 제고	관세청, 통관인증업체 심사·물품검수 실시, 병행수입업체 차원의 상품 진위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AS 기반 구축	지역별 접수 청구 지침, AS 정보 제공 강화
중소업체 참여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 과세가격의 40%로 경감
직접구매	
해외직구 대상품목 확대	목록통관대상 전 소비재로 확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폐지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국제협력 추진, 포털사업자 관리의무 강화, 반품 시 강제 환급절차 간소화

출구 못찾는 KB 내분 경영진 계좌조회 수모

금감원 "리베이트설 확인 차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리베이트설이 퍼지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근호 국민은행장, 사외이사들의 계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는 금감원은 내분사태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계좌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 수뇌부 계좌까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KB 내분사태가 발생한 지 2주나 지났지만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강력한 검사를 주문했다. 현재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20여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하고 검사기간도 다음달 초까지 연장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갈등을 빚은 국민은행 경영진은 오는 30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전산기기 교체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23일 김중웅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를 열었지만 소득 없이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당국의 압박과 여론의 뭇매에 부담을 느낀 임 회장은 당사자들을 불러 30일까지 내분사태를 해결하라고 최후통첩을 알렸지만 이사회가 감사와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현 기자 sunhyun@

"LG의 명운, 이 손안에 있소이다" 전략폰 'G3' 글로벌 론칭



LG의 명운(命運)을 좌우할 전략 스마트폰 'G3'가 28일 새벽 2시(한국시간) 영국 런던 배터시 에볼루션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글로벌 출시 행사에서 첫 공개됐다. 세계 최초로 QHD를 탑재한 G3는 HD의 4배, 풀HD의 2배에 달하는 고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런던을 비롯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서울, 이스탄불, 싱가포르 등 세계 6개 도시에서 G3 론칭 행사를 열고, 전 세계 100여개 국가 170여개 통신사를 통해 대대적 공급에 돌입한다. LG전자 MC사업본부 우량한 MC상품기획 담당이 G3를 오른손에 들고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사진제공 LG전자

'삼재' 낀 한국경제, 하반기에도 흐림

'환율·가계부채·소비부진' 등 발목... KDI, 올 성장률 0.2%P 하향

하반기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겹쳤다. 가계부채·소비부진·환율불안 등 트리플 악재가 표면화된 데다 세월호 참사라는 예기치 않은 복병까지 겹친 탓이다.

이에 따라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이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3.9%라는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대표적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올해 성장률을 3.7%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4.1%를 제시했다.

불과 두 달여 전만 하더라도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민간소비는 작년 3분기 1.0%, 4분기 0.6%, 올해 1분기 0.3%로 증가세가 점차 축소되며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쳤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가 45도의 완만한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지난해 말 예상했지만 20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월드컵 특수 등이 있었지만 제한적 성장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해의 상저하고(上低하高)의 경기흐름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월호 여파 등으로 올해는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계소득 증가 약화, 공적연금 미

흡, 미래에 대한 불안,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으로 구조적 소비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하반기 경기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4분기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간 1000조원대의 가계부채도 소비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지난 1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74.5%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반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밀 곳은 수출뿐이지만 이마저도 '환율'이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 계약 시점상 환율 변동에 따른 여파가 통상 3-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4월부터 본격화한 환율 하락이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경제 회복세가 흔들리면서 내수 활성화를 전제로 3.9%의 전망치를 제시했던 정부의 올해 성장률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해외건설 수주 300억달러 최단기간 '금자탑' 세웠다

(5개월)

중동 대규모 플랜트 수주 호재
해진협 "올해 700억 달러 무난"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5개월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연초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국가에서 대규모 플랜트를 수주한 공이 컸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금액이 포함됐던 2010년을 제외하고 사실상 역대 최단기간에 거둔 성과다.

2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공사 수주액(계약 기준)은 총 309억 2655만6000달러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해외 수주액이 처음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달 20일(305억3674만 달러)로, 6월 이전 300억 달러 이상 수주한 것은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0년에는 180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면서 연간 기록으로 가장 이른 4월 7일 300억 달러(301억

7125만5000달러)를 달성했다.
당시에는 UAE 원전 한 곳의 수주액만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특수 상황이어서 사실상 올해가 역대 최단기간 내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진협측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33억1786만5000달러)에 비해서도 32.6% 증가했다. 작년엔 6월 25일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역별 최고 수주지역은 중동으로 전체 물량의 80.51%인 245억8635만6000달러를 수주했다. 이어 아시아가 45억2068만4000달러(14.62%)로 2위를 차지했고, 중남미(11억5548만5000달러), 아프리카(4억8955만4000달러), 북미(1억1703만1000달러), 유럽(5744만6000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해진협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치인 700억 달러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태진 기자 tipjippo@

Money 수요섹션 21~24면 커버스토리 논란의 중심 '금융권 감사'



권영수 사장 ▶ 김정수 회장 ▶ 19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숫자로 본 NEWS

전국 인구가동자 수
(단위: 명)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단위: 십억원)

부동산 활기 이사도 늘어

업직종의 힘... 모바일쇼핑 ↑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이사하는 사람이 석 달 연속 늘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4월 국내인구이동률 보면 지난해 전국 인구가동자 수는 6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을 나타낸 인구이동률은 1.29%로 작년보다 0.04%포인트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인구이동률 수는 올해 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주로 감소세를 보였던 지난해와는 달리 증가세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지난 1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에 PC 쇼핑을 더한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하며 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조4680억원으로 작년 동기(8조9760억원)보다 16.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4분기 18.4%를 기록한 이래 5분기 만에 최고치다. 전민정 기자 puri21@

권영수, 경쟁사 배터리 탑재 'i3' 산 까닭

〈LG화학 사장〉

국내 전기차 배터리 라이벌업체 삼성SDI서 공급 사전예약...경쟁사 기술수준·품질력 직접 점검 뜻 LG, 르노와 제휴...현재 10여개 완성차업체 공급

“일반 판매도 많지만 기업들이 구입하는 물량도 상당합니다.” BMW의 첫 전기차 ‘i3’가 국내에서 예상밖의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i3 사전예약 구입자 중 한 명이 권영수(사진) LG화학 사장이란 것으로 전해져 화제다.

권 사장의 구입은 i3에 탑재된 배터리를 삼성SDI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쟁업체의 기술 수준과 성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업계의 시각이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BMW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i3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며 “LG화학 외에도 다수의 대기업이 사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라이벌이다. 업계 1위인 LG화학은

GM, 현대기아차 등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20일 LG화학은 르노그룹과 ‘장거리 차세대 전기차 공동개발’을 약속했다.

트위지, 조에, 강구, 플루언스 Z.E(국내명 SM3 Z.E) 등 전기차 4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르노그룹은 같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속한 닛산과 함께 2016년 전기차 150만대 판매를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LG화학은 현재 10여개 완성차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출시 예정된 차종까지 합치면 내년에는 20여개 완성차업체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권 사장이 i3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i8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BMW와 긴밀한 공조에 나서고 있는 삼성SDI의 품질력을 직접 점검하는 것.

한편, 권 사장이 구입한 BMW i3는 국내

에서 4월 발표 이후 현재까지 100여대 사전 예약을 기록했다. BMW의 올해 판매 목표인 250대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i3는 6월 차량 인도를 시작으로 본격 판매에 돌입하는 만큼 올해 판매 목표를 쉽게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3는 우수한 성능으로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를 더욱 촉발할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차 국내 판매 1위라는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데다 성능도 뛰어나다. i3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 132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5.5kg·m을 갖췄다. 이 같은 성능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60km/h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7초, 100km/h까지는 7.2초면 충분하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BMW의 첫 전기차 'i3'



조지 자부 조지워싱턴대 금융공학석사 과정 학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윤경SM포럼에 참석해 금융과 윤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조지 자부 조지워싱턴대 학과장, 윤경SM포럼 강연

“윤리성 빠진 숫자는 언제든지 조작 가능”

“금융의 숫자는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윤리성이 빠진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조지 자부 조지워싱턴대 금융공학석사(MSF) 과정 학과장은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윤경SM포럼 5월 정기모임에 참석해 ‘금융과 윤리’ 주

제로 강연을 펼치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부 학과장은 “500년 역사의 글로벌 은행도 윤리강령은 잘 갖춰져 있지

지만 실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윤리강령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를 실천하느냐가 문제”라고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 단 한 명의 비윤리적 행위도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윤리실천의 문제는 개인 단위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움직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부 학과장은 “기업의 윤리는 ‘응용윤리에 속한다’고 단언했다.

응용윤리는 실천하는 윤리에 대한 연구분야다. 기업 거래상의 내부자 거래, 우대조건 제시, 분식회계 등 조작이 가능한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어 그는 윤리와 공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부 학과장은 “기업은 윤리와 공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윤리성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등 고려해 실천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윤리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옳은지 그른지 등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질문해야만 한다”며 “문화권, 국가별로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윤리에 대한 보편적 정서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마지막에 그는 “만약 당신이 매일 4달러 견과류를 사 먹는 데 어느 날 가게 주인이 계산을 잘못해 1달러만 받았다면 당신은 이를 지적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자부 학과장은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기업 윤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취임 1년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현장경영’ 통했다

작년 6월 한달간 12개 영업본부 238개 지점 방문 직원들과 스킨십 강화 품질경영·설계사 육성 강조 1분기 당기순이익 218억...전분기보다 6배나 늘어

1985년 신한은행에 입사한 이래 27년간 은행에만 몸담았던 이성락(사진) 신한생명 사장이 보험업계로 이동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정통 뱅커 출신인 이 사장은 취임 이후 현장과 임직원 간의 소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에 대한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신한생명 수장 자리에 오른 이성락 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소통을 중요시해 왔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융합시키고 막힘 없는 소통을 통해 항상 직원과 고객

과 함께 할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직후부터 이 사장은 현장경영을 강화해 왔다. 그는 취임 첫 달인 6월부터 한 달간 전국 12개 영업본부를 방문했다. 현장을 찾은 지점 수만 238개에 달한다. 사장으로서 취임했으니 형식적으로 현장을 찾은 것이 아니다. 지점장부터 직원, 간부 설계사 등을 만나 소통했다.

현장을 찾은 이 사장은 품질경영과 설계사 육성을 강조했다. 품질경영에 대해 단순히 실적을 올리는 영업보다는 보합업계의 본질인 고객에게 힘이 되는 판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직원들과 산행을 가기도 하고 호프데이를 열기도 한다. 그는 이런 자리를 통해 직원들과 회사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눈다.

이 같은 이 사장의 소통경영 노력이 실적 개선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신한생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18억원으로, 이는 전 분기(36억원) 대비 6배가량 개선된 수준이다.

신한생명은 업황 불황 등으로 2012 회계연도 4분기 403억원, 2013년 1분기 208억원, 2분기 153억원으로 최근 4분기 연속 분기 순이익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연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직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른바 ‘관계형 금융’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임원·부서장 등 43명과 함께 사전 선별된 우수고객의 직장으로 설계사와 함께 찾아가는 ‘고객 방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기본공급약관 개정시행 (2014. 6. 1 시행)

국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전력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한국전력은 소비자의 편의증진과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합니다.

“모두를 생각하는 행복한 전력서비스”

주요 개정 내용

Ⅰ 규제·고객부담 완화 Ⅰ

- 전기 재사용시 고객부담금을 완화합니다.
 - 요금 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1년 이내 재사용시에는 전기공급정지기간중 기본요금을 면제합니다.
 - 해지후 3년 경과후 재사용시에는 신규시설부담금을 면제하고 재사용에 따른 실비용만 청구합니다.
- 적정수준의 역률유지 및 역률 할증고객의 부담경감을 위해 역률 할인·할증률(0.5%→0.2%)을 조정합니다. (8월분 요금부터 적용)
- 초중고교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할인 특례(전기요금의 4%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Ⅱ 합리적 전기사용 유도 Ⅱ

- 22.9kV 전력구 이용고객의 시설부담금 적용기준을 전력구 이용면적 기준으로 현실화합니다.
- 최대수요전력계 고장시 고장월 중 정상계량된 피크도 요금적용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

1 이건호·정병기 양심선언?...작년 경영협의회 결정 번복, 왜

〈국민은행장〉 〈국민은행 감사위원〉

30일 이사회 앞둔 KB금융...전산교체 갈등 4가지 의문점

KB국민은행 경영진의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내분이 오는 30일 이사회를 앞두고 절정으로 치달고 있다. 국민은행 이사회가 사태 악화를 우려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침을 철회했지만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사태가 단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천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이건호 행장·정병기 감사와 사외이사 간의 시각차가 큰 만큼 문제 해결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권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건호 행장이 지난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왜 뒤늦게 번기를 들었는지, 정병기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각가지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2 이사회 목살 '감사보고서' 내용은 전산시스템 교체 오류·외압 지적?

3 한국IBM 이메일 한 통서 비롯 국민은행 경영진이 돌아났나?

4 유난히 침묵 지키는 사외이사들 지주측 입김에 보고서 채택 거부?

1 이건호, 지난해 결정된 내용 왜 뒤집었나 = 이번 KB금융 내분 사태는 이 행장과 정 감사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문제로 삼는 것처럼 사태의 발단이 경영에서 탈락한 업체인 한국IBM 대표가 이 행장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에서 비롯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이메일을 근거로 정 감사가 지난해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에 번기를 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행장이 지난해 이미 같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전산시스템 교체 논의는 지난해 11월 은행 경영협의회와 올해 4월 은행-카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닉스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확정지었다. 논의가 시작될 당시 이 행장은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을 담당하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상황들을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거진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문제보다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2 정병기, 감사보고서에 무엇이 담겼나 = 정병기 감사는 전산시스템 교체 결정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입장에선 가장 큰 불만은 이번 자신의 지적을 이사회에서 묵살했다는 점이다. 정 감사는 지난 3월부터 내부 조직에서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문제들이 불거졌고, 이에 내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사회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감사보고서 채택 여부가 30일 이사회 의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다.

감사보고서에는 유닉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라 발생할 리스크 비용 10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주측이 유닉스 시스템 전환을 위해 은행 내부 관련조직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해 11월 은행 경영협의회에 올라간 보고서에 적시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노조원들이 28일 오전 명동 KB금융지주 로비에서 임영록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그러나 이 같은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되는 만큼 경영진이나 실무진들의 이권개입이나 리베이트 등 많은 문제들이 들춰졌을 것이라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3 한국IBM에 국민은행 경영진이 돌아났나 = 한국IBM이 이 행장에게 보낸 이메일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로 수혜를 받은 곳은 한국IBM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은행은 전문학적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IBM과 단기 연장계약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

준대로 장기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내년 7월 말 한국IBM과 메인프레임 사용 계약이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에는 프로젝트가 착수돼야 한다.

이를 두고 KB금융 경영진은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았더라도 한국IBM의 이득만 챙겨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IBM에 돌아났는지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사외이사들의 왜 침묵하나 = 국민은행 사외이

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난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이사회에서는 정 감사의 감사보고서 채택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정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지난 14일 작성돼 16일 은행 감사위원회에 부의됐지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오갑수·강희복·송명섭 등 3명의 사외이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행장이 19일 이사회에 직권으로 부의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 지속적인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는 지주측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안철우 기자 acw@

IBM 메인프레임	유닉스
폐쇄형	개방형
중앙집중형	분산형
강함, 단 중앙서버 해킹시 심각한 피해	약함, 분산형이라 해킹 발생시 부분 피해
DB, 보안 등 각종 소프트웨어 포함된 올인원 시스템	장점 2000년 이후 기술 수준 크게 개량, 공급사 많아 값 저렴
IBM 독점으로 가격 높음	단점 IBM보다 완성을 다소 떨어짐
국민, 우리, SC, 씨티, IBK(10월 유닉스 변경 예정) 등	사용은행 농협, 하나, 신한, 외환 등

국민銀 '내홍' 장기화 땐 IBM만 잇속 챙기는 꼴

내년 7월 사용계약 만기...추가 계약해야 SI업체 "논란여지 없어...내홍 이해안돼"

SI(시스템통합)업체 관계자들은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가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닌데, 괜히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SI업체에 따르면 IBM의 메인프레임과 유닉스 서버의 경우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별업체가 이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 선택하면,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일관된 이야기다.

메인 프레임의 경우 IBM의 독점 공급 탓에 가격이 비싼 반면, 모든 시스템을 한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 또 보안 면에서도 유닉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유닉스의 경우 개방형 시스템으로 보안 수준은 메인 프레임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여러 업체가 각각의 분야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추가 개발할 수 있는데다, 가격이 IBM에 비해 저렴하다. 이런 특·장점 때문에 두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KB금융지주도 이같은 판단으로 시스템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수뇌부의 계좌까지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이번 논란을 보는 내·외부 시각이 단순 시스템 선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업계 역시 시스템 선정을 둘러싼 내용에 대해 이해

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SI업체 관계자는 "시중 은행들이 점차 메인 프레임에서 유닉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시스템 결정시 IBM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논란의 발단을 제공한 IBM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해당 프로젝트 착수가 늦어지면 국민은행은 '올며 겨자먹기'로 기존 시스템을 맡은 IBM과 추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IBM과 내년 7월까지 메인 프레임 사용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현재 유닉스로의 전환 작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IBM과 추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통상 메인 프레임 한 달 사용료가 30억원인데다,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IBM은 18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메인 프레임 사용을 단기로 계약할 경우 한 달 비용은 9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작업에 입찰하기 위해 유닉스 시스템을 준비해왔던 업체들은 수백억원의 기회비용을 잃게 됐다. 이들 업체는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최근 있었던 입찰조차 응하지 않았고, SK C&C만 단독 입찰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IBM 메인 프레임에서 유닉스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추세다. 당장 오는 10월 기업은행이 유닉스로의 교체를 예정하고 있는데다, 이미 농협, 외환, 신한, 하나은행은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즉 씨티, SC 등 외국계 은행을 제외하면 IBM 메인 프레임을 사용하는 국내 시중은행은 국민과 우리은행만 남게 된다.

김태현 기자 119@

www.ex.co.kr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속도로에 심판을 찍다

전국 133곳에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졸음운전하지 말고 졸음쉼터하세요~

운전 중 피곤할 때 잠깐의 휴식은 우리모두의 생명을 지킵니다

졸음쉼터 설치 후 한해 고속도로 사망자 수 34% 감소

안전운전은 당신의 행복한 운전입니다'

고속도로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길

- 무정차 무사고 Smart Highway 시대 본격 개막
-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정체구간 해소 (△57km)
- 장애인 감면 4개의 카드를 1개로 통합 (장애인 편의증진)
- ※ 신기술 실용화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안전한 길

-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지속 확대 (133개)
- 24시간 2504 긴급견인서비스 운영
- 교통사고 사망자수 획기적 감소 (343명 → 264명)
- ※ 국가 사이버 안전 유공 대통령상 수상

쾌적한 길

- 통일 회관나무 심기 운동 확산
- 복합휴게소, 청년창업 창조경제 휴게소 등 휴게소 혁신
- 강력한 자구노력으로 2년 연속 부채비율 감소
- ※ 국정홍보 콘텐츠 확산 기여 대통령상 수상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 한국도로공사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또 사상최대

3월말, 전분기보다 3조4000억 증가
제2금융권 생계형 대출 32배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이 올 1분기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의 32배에 이르는 등 가계빚의 질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빚 시한폭탄이 한국경제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4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024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3조4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다.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신용은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 1분기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 비로는 6.4% 강증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빚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차입 규모는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8곳의 평균(69%)보다 월등히 높다.

가계빚은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도 악화되고 있다. 가계신용 중 예금은행의 대출액은 481조3000억원으로 3개월간 1000억원(0.02%) 늘었어나는 데 그

가계빚 현황 (단위: 조원)

연도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신용	가계대출	가계대출	
2012년	1분기	916.5	453.1	184
	2분기	928.6	457.9	188
	3분기	940.7	459.3	189.2
	4분기	963.8	467.3	192.6
2013년	1분기	962.9	462.4	192.7
	2분기	979.6	470.7	195.8
	3분기	993.6	472.7	199.3
	4분기	1021.4	481.1	206.1
2014년	1분기	1024.8	481.3	209.3



쳤다. 반면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3조2000억원(1.6%)이나 증가해 20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의 32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은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에서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신용(1~4등급) 차주의 대출은 49% 늘었지만 중·저신용(5~10등급) 차주의 대출은 오히려 21%나 감소한 것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층들이 생계형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몰렸다"며 "제2금융권 가계빚이 커지면 안 그래도 심각한 가계부채 리스크는 더욱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조윤선 장관 상의 강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지난달 전국 땅값 0.18%↑... 세종·일산 최고

광명시 -0.223% 최대폭 하락

지난달 전국 땅값이 0.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와 고양시 일산 서구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4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을 보면 지난달 전국 지가는 전달보다 0.18% 상승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4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을 찍었던 2008년 10월과 비교해도 1.66% 높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행정구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0.18%씩 상승했다. 서울시는 0.23%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구 단위에서도 구로구(0.057%)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상승했다. 구로구는 고척동, 신도림동을 중심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면서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국에서 토지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0.613%

의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다. 3생활권의 성공적인 주택분양과 임시터미널 착공 등이 이뤄진 결과다. 다음으로는 경기 고양 일산 서구가 지난 2월 일산-삼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대감으로 0.462%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서울 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건설과 문정도시개발사업 진척 등으로 0.437% 뛰었고 인천 계양구도 주거지역과 공장용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0.432% 올랐다. 대구 달성군도 성서5차산업단지 인근 주택과 달성2차 산업단지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면서 0.408% 상승했다.

반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0.223%를 기록 광명시다. 3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광명뉴타운 정비구역 해제요청, 보급자리사업 축소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다. 뒤이어 인천 옹진군(-0.108%), 부산 중구(-0.090%), 충남 청양(0.072%), 서울 구로 등의 하락폭이 컸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윤상직 "UAE와 손잡고 제3국에 원전 진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30대 기업의 투자계획 발표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 삼성 OLED 공장 증설 계획이 추가되는 등 추가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27일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UAE 원전 방문 이후 UAE 측이 우리 정부와 손을 잡고 제3국 원전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전력과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가 역할 분담을 통해 UAE와 유대관계가 돈독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원전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이미 양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부분이며 후속조치로 현지 행정청 장관과 역할 분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 UAE와 원전 서비스 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며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소비부진이 깎아먹은 성장률

KDI 이어 타 연구기관들 하향 전망
세월호 여파 0.1%~0.2%p 내릴 듯
해법도 없고 재정정책도 무용지물

우려했던 소비부진이 결국 경제성장률을 잡아먹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전망치를 하향한 데 이어 다른 연구기관들도 줄줄이 전망치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7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를 제시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다. KDI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8일 올해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중년의 4.2%에서 4.1%로 내렸다.

금융연구원과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연구소와 기관들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구소들은 전망치 수정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 부진과 세월호 참사 영향 등 하향 조정할 요인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쯤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수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계획이다. 세월호 여파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



가 발표되지 않아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참가가 2분기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제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세월호 효과만 본다면 기존의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전과 비교할 때 하향 조정할 요인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변양규 환경연거시정책연구소장은 "1분기에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내릴 요인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기존의 올해 전망치는 LG경제연구원이 3.9%, 환경연이 3.5%였다. 문제는 소비부진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여파로 집계된 소비부진을

축진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소비부진에 대해 '세월호 참사 영향'이라고 설명하려는 모습이 많다. 하지만 KDI가 성장률을 낮춘 것은 1분기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의 추경예산 취지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이었지만 민간소비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됐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2.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3.6%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분기별 성장률 전망은 2분기 3.7%, 3분기 3.6%, 4분기 3.5% 등으로 갈수록 성장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금융주치의’는 엄격하게 선발된 자산관리 전문가 입니다.

전문금융지식과 투자컨설팅경험을 갖춘 165명 금융주치의들이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합니다.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 금융주치의는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제 41-0271044호)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245호(2014.04.07 ~ 2015. 04.06)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하나·수출입銀 벤처투자 앞장

하나금융, SKT·성장사다리펀드와 '스타트업 원원펀드' 수출입銀, 사모투자펀드 지분투자 한도 15% → 25%로

하나금융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맞춰 벤처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벤처투자(VC)업계도 은행들이 잇단 지원책을 내놓자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와 손 잡고 가장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곳은 바로 하나금융지주다.

실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일 SK텔레콤, 성장사다리펀드와 함께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원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금융(하나, 외환은행) 100억원, SK텔레콤 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00억원 등 총 400억원 이상의 공동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어 23일 하나금융(하나, 외환은행)은 향후 국내 산업을 이끌어갈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 및 희망벤처금융포럼'의 회원 기업과 협력업체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두 기관은 해당 기업들이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리 우대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정수진 부행장은 "창조경제와 개혁,

도전정신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은법 개정으로 사모투자펀드(PDF)를 통한 지분투자 한도가 확대된 수출입은행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동안 수은은 기존 법령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가 가능했지만 건별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덜 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수은법 개정을 통해 건별에서 연

간 총량 승인제로 변경한데다 보유 지분을 한도도 15%에서 25%로 확대되면서 벤처투자업계에서 거는 기대감이 크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통합을 앞둔 정책금융공사의 대외 정책금융업무가 수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정금공이 맡아오던 벤처투자지원업무도 수은이 맡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은 취지 성격상 해외수출지원에 적합한 벤처투자펀드 지원에 대해서만 투자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금융기업들의 잇단 지원책과 출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조우량 금융기업들이 우량 펀드출자자(LP)로 나설 경우 자금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벤처투자업계에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삼성화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징계 받아

설계사 8명... 1인당 과태료 1000만원

삼성화재가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삼성화재의 부문감사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보험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권은 보

험 설계사 8명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텔레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징계를 받은 해당 설계사들은 퇴직한 상태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금감원 "전북銀 자본건전성 관리" 주문

BIS비율 하락...광주銀 합병 리스크도

김한 JB금융 회장에 경영 정상화 요구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자본건전성 개선을 경고하고 자본확충 등 경영 정상화를 주문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한(사진) JB금융지주 회장 겸 전북은행장을 불러 전북은행의 자본건전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전북은행이 JB다이렉트 등의 은행 상품을 과도하게 팔면서 자산이 늘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낮아지고, 광주은행 합병으로 리스크 요인이 많이 생겼으며 방치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김한 회장을 만나 다른 은행에 비해 건전성이 좋지 않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의 BIS비율은 3월 말 기준 12.21%로 경영 실태평가 1등급 기준인 10%를 넘었으나 국내은행 평균인 14.14%에 비해선 낮은 편이다. 전북은행은 올해 1



분기 영업이익이 1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3.4%나 급감했다. 앞서 JB금융은 지난해 12월 31일에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JB금융이 꺼낸 인수 가격은 5000여억원으로 인수 비용 마련도

관심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북은행의 경우 최근 BIS비율이 낮아진데다 광주은행을 합병하면서 자본확충 계획을 밝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수신 부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돼 불시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외환은행과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수신고를 울리려고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으나 금감원 검사에서는 특이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농협카드 '베이직카드' "할인 맘껏 누리세요"

NH농협카드는 국내외 전 가맹점 어디서나 제한 없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베이직(BAZIC)카드를 28일 출시했다.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의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2% 청구할인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주말(일요일)에는 전월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는 0.3%가 추가된 1.0%, 체크카드는 0.1%가 추가된 0.3%가 청구할인 되는 것이 특징이다. 베이직카드의 기본 할인혜택은 전월 이용금액·이용가맹점·할인 한도 등의 제한이 없으며, 평일·주말 관계없이 제공된다.

인터넷에 정기인사 명단이... 외환銀 보안 '구멍'

1504명 실명·근무지·행번 등 기록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외환은행의 정기인사 발령 명단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나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본지가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외환은행 인사발령'이라고 검색하자, 외환은행의 올해 상반기 인사발령 통지서가 저장된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었다.

해당 페이지엔 외환은행의 올해 1월 부점장급에서 계약직 1504명의 승진·이동·과전·복직 사항이 엑셀 형태로 게시돼 있으며 직원의 실명·근무지·휴직 및 복직 사유 등이 기록돼 있다. 일부 직원의 경우 행번도 함께 기재돼 있다.

일반적으로 각 은행들은 인사발령이 나면 지점장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만 외부에 알리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부용 문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보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발령 명단이 게시된 웹페이지는 외환은행의 도메인(keb.co.kr)로 시작하나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선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다. 사내 인트라넷이 아닌 외부에서 인사발령 명단을 열람하려면 임직원 전용사이트인 'KEB Family'에 접속해야 한다. 이 사이트는 가입 후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원의 인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인사발령 게시는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사항이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자료 관리 절차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권, 세월호 참사 2000억 자금 지원

피해가족에 154억·중企에 1984억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 가족과 피해 우려 중소기업 등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카드사, 수협, 보험사, 캠프,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사들은 지난 23일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와 관련 총 2138억원(1761건)을 지원했다.

이 기간 금융사들은 피해 가족에 154억원(413건),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1984억원(1348건)의 자금 지원을 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을 보면 대출 만기 연장이 1479억원(710건) △신규 자금 지원이 469억원(306건) △보통금 지급이 141억원(195건) △원리금 상환유예가

29억원(307건)이다.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153억(412건)이며 피해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1억원(1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우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지역별로 안산이 1007억원(337건), 진도가 61억원(203건), 수도권이 565억원(297건)이다.

지난 12일부터 안산과 진도에서 운영 중인 현장금융지원반은 지난 26일 현재 8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837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에 연결 또는 안내했다.

현장금융지원반은 금감원 직원을 반장으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보증기관, 서민금융기구 등에서 파견된 금융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박영리 기자 ellee@






[희망은 자란다]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일에서 일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제 제 2013-2857호(2013.12.3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기일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 대장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연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NAVER 소사벌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www.ubora-ivyparkpt.co.kr

착한분양가로 다 누려라!

B 반도건설

5월 29일(목)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 2순위 청약일입니다!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우수한 상품에 많은 분들이 감탄하셨습니다!



소사벌지구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74m² / 84m² 총 1,345세대
[7BL 630세대 / 8BL 715세대]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경품대잔치

EVENT. 1
주말 경품 대잔치
5월 31일(토) / 6월 1일(일) 오후 4시
50인치 TV(2명) / 로봇청소기(4명) / 클래식 SET(10명) / 태블 선물 SET(20명)

EVENT. 2
청약자 / 당첨자 / 계약자 사은품
- 청약자 선물 증정!
(성공수령일: 6월 9일 ~ 6월 9일까지 1건에 한함) / 청약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
- 청약 당첨자 선물 증정!
(성공수령일: 6월 12일 ~ 6월 15일까지) / 당첨자 신분증 지참
- 계약자 선물 증정!

모델하우스
오픈중

High 비전	삼성전자 입주, LG전자 확장, KTX 지제역 개통(예정) 등 슈퍼비전의 중심
High 생활	뉴코아아울렛(평택 CGV), 롯데마트를 품은 편리한 비전동 생활인프라
High 교육	평택 최초 단지 내 별동학습관·메가스터디 온라인강좌, 영·유아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High 설계	혁신설계의 4bay, 주방공간특화+α공간을 도입한 전세대 중소형 대단지
High 프리미엄	신도시마다 성공신화를 이룬 반도유보라만의 빅브랜드 프리미엄

청약 및 계약일정		
특별공급	5/28(수)	
1, 2순위	5/29(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3순위	5/30(금), 6/2(월) 08:00~17:30 / 인터넷 청약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5/28(수)
	7블럭	6/10(화)
	8블럭	6/11(수)
계약일	6/16(월)~6월18일(수)	



74m²/84m² 총 1,345세대 [7BL 630세대 / 8BL 715세대] ■ 시행 (주)대원개발 (주)반도주택 ■ 시공 B 반도건설 문의전화 031) 653-9393

재계, 세월호 아픔 딛고 다시 댚다

신제품 공개·해외시장 점검 '현장 경영' 재개

'월드컵 특수' 기업들 영업·마케팅 활동 활기

재계가 세월호 대참사의 아픔을 딛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적 애도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자체에 온 각종 행사나 마케팅 활동 등을 다시 열고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월드컵 특수가 코앞인 데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영업활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이날 19일 홍콩에서 열린 삼성전자 투자자 포럼을 시작으로 대외활동 및 마케팅 재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이진

희 회장이 와병 중인 만큼 최대한 행사를 축소해 치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29일 무주리조트에서 예정된 그룹 신입사원 하계 수련회를 2박 3일에 걸쳐 진행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 1박 2일 일정으로 줄였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불참하고 체육대회 및 응원전, 불꽃놀이, 초청가수 공연 등 축제성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이날 30일 진행되는 제24회 호암상 시상식과 축하만찬도 차분하게 치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익선 부회장이 이달 10-16일 인도 첸나이 공장과 터키 이즈

미트 공장을 방문해 현지 생산과 판매 상황을 살폈다. 더불어 오만 현지의 소품 개장식에도 참석하는 등 신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LG그룹은 구본무 회장이 전라 스마트 폰 'G3' 공개를 앞두고 이날 21일 서울 금천구 LG전자 가산 R&D캠퍼스를 방문해 제품 디자인 등 경쟁력을 점검했다. LG전자는 27-28일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G3 공개 행사를 열었다.

기업별 영업·마케팅 활동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TV 등 가전제품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는 다음달 출시할 그랜저 디젤과 신형 카니발의 고객 체험 행사를 열 계획이며, 기아차는 이달 22일 신형 카니발 미

디어 공개 행사를 했다. 현대·기아차 모두 이달 말 열리는 부산 모터쇼에 참가해 다양한 신차와 콘셉트카를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월드컵 기간인 6월 한 달간 기존 주 3회의 인천-상파울루 노선을 주 5회로 증편한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들은 6-8월 여름휴가 시즌을 노린 국내·국제선 티켓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유통가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다시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에 따라 100만원 상당의 경품 증정 행사를, 현대백화점은 월드컵 공식 스폰서 '소니'와 함께 '월드컵 결과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밖에 홈플러스는 '힘내자 대한민국, 가자 홈플러스' 슬로건을 내세워 태극전사 선전기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장효진 기자 js62@

'안전경영' 고삐

경제 5단체 '안전시스템 구축' 모금 활동

경총 간담회 '산재예방 실천 결의문' 채택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계의 안전경영 기초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경제단체가 세월호 성금을 모금하는 가 하면 안전을 담당하는 서한문을 돌리고 간담회를 여는 등 안전경영에 한 걸음을 옮기고 있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 어느때보다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후 4시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방한 남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산재예방 CEO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 장관과 경총 회원사 CEO 간 토론이 진행된다. 또 토론 이후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한 경영계의 실천 결의문이 채택돼 발표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안전경영 강화 등에 발맞춰 기업이 주체가 돼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이 안전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일에는 국내 5대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가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5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을 벌이는 데 합의했다. 재계는 마련한 성금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난 23일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회원사들에 안전경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돌렸다. 허 회장은 서한문에서 회원사들에 안전경영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사업장내 안전설비를 점검하는 한편, 안전사고 대비한 상시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현대자동차, 몽골서 자동차 재활용 지원

현대자동차는 몽골에 자동차 재활용 기술을 지원하는 '몽골 자동차 재활용 센터'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몽골 자동차 재활용 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최근 급증하는 몽골의 노후차량 폐차 산업을 지원해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대차, 오토리사이클링센터, 몽골자동차자원순환협회(MoARA)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현대차는 자동차 재활용 및 폐차 처리 기술과 현지 직업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몽골 자동차 재활용 센터의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맡는다.

현대는 이번 몽골 자동차 재활용 센터의 건립으로 몽골의 노후차량에서 배출하는 각종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폐차에서 나오는 부품을 재활용해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 미러리스 스마트 카메라 'NX3000' 출시

삼성전자가 가족 단위의 야외 활동과 여행이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 시즌 공략을 위해 고성능 DSLR급 화질에 휴대가 편리한 가족용 미러리스 '스마트 카메라 NX3000'을 28일 출시했다. 서울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스마트 카메라 NX3000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중 매장 10년 내 3000개"

망고식스, 중국서 첫 MF

망고식스는 중국 상하이시산인관리유한공사와 상하이 지역에 대한 마스터프랜차이즈(이하 MF)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망고식스의 첫 MF로 지난 25일 코트라 상하이 KBC에서 진행됐으며, 망고식스 강훈 대표와 상하이시산인관리유한공사 쑹치(宋琦) 대표 등이 참석했다.

망고식스는 현재 중국 내 연길점, 운주점, 상하이 12호점 등 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향후 10년 내 300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대표는 "망고식스는 처음부터 글로벌 브랜드를 목표로 론칭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했다"며 "글로벌 망고식스를 위해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선애 기자 isa@

코오롱환경서비스 내부거래 줄었다

(이윤율 확장 지분 30.3% 보유)

내부거래 비율 50% 안팎서 30%대 축소

수의계약 비율은 27%→75% 크게 늘어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열사 간 거래관계에서 수의계약이 급격히 늘어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지난해 8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703억원 대비 15.4% 늘어난 수준이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토목시설 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최근 4년래 급격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419억원이던 매출은 2011년 479억원, 2012년 703억원, 지난해 812억원 등 두 배 정도로 불어났다.

눈에 띄는 점은 코오롱환경서비스의 매출이 늘어난 반면, 내부거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오롱환경서비스의

내부거래 추이를 보면 2010년 내부거래 비율은 매출의 44.2% 수준이었다. 이후 2년간 내부거래 비율도 40-50%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34.9%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매년 2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에 거래처는 다변화하면서 매출은 늘리고 수익성은 유지되는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 그룹 내 계열사 거래 관계에서 수의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코오롱글로벌,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유틸리티에너지 등 계열사간 거래에서 따낸 심여건의 계약들 중 수의계약 비율은 27.8%에 불과했다. 다수의 계약은 지령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

찰을 통해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선정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코오롱글로벌이 발주한 공사의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지난해에는 12건의 계약 경쟁입찰은 단 3건에 그쳤다.

코오롱 관계자는 "입찰할 때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나 밖으로 보여지는 건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는 코오롱환경서비스만 갖고 있는 기술들 때문에 수의계약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체질 개선에 이윤율 확대의 일각 증여세 부담도 다소 줄어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배주주 지분이 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회장은 코오롱환경서비스 지분 3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 5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조남호 기자 spdran@

베일 벗은 LG 야심작 'G3'

세계 첫 QHD 탑재 '막강스펙'

'LG헬스' 건강관리 기능까지

LG의 그룹의 기술력을 집결해 만든 전략 스마트폰 'G3'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LG전자는 28일 오전 2시(한국시간) 영국 런던 배터리 에블루션 국제전시장에서 글로벌 발매 행사를 개최하고 G3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같은 날 오전 10시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제품 출시 미디어 데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G3는 세계 100여 국가의 170여개 통신사를 통해 각 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출시가는 89만9880원이다.

세 번째 G시리즈인 G3는 세계 최초로 QHD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QHD(2560×1440)는 HD(1280×720)의 4배, 풀 HD(1920×1080)의 2배의 해상도를 구현한다. 화면 인치당 픽셀 수는 538ppi에 달한다.

또한 G3의 디스플레이 면적은 5.5인치로, 제품 앞면의 전체 면적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76.4%에 달한다. LG 헬스는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걸음 수, 칼로리 소모량, 운동 거리 등을 측정하고, 운동량을 친구들과 비교해 순위 정보도 제공한다.

국내 출시되는 색상은 메탈 블랙, 실크 화이트, 사인 골드 등 3가지다. 해외 시장에는 문 비올렛, 버건디 레드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G3는 후면 카메라에 레이저 빔을 쏘



아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빠르게 초점을 맞추는 '레이저 오토 포커스'를 채택했다. 또 전면 카메라는 저조도 상황에서도 렌즈가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는 F2.0의 광학 설계를 적용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에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더한 OIS플러스(OIS+)도 탑재했다.

아울러 G3는 '심플함, 새로운 스마트(Simple is the New Smart)'라는 제품 콘셉트에 맞게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한다. 특히 'LG 헬스'는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걸음 수, 칼로리 소모량, 운동 거리 등을 측정하고, 운동량을 친구들과 비교해 순위 정보도 제공한다.

국내 출시되는 색상은 메탈 블랙, 실크 화이트, 사인 골드 등 3가지다. 해외 시장에는 문 비올렛, 버건디 레드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G3는 후면 카메라에 레이저 빔을 쏘

서지희 기자 jhsseo@

삼성전자 지난해 中 매출 40조원

국내 매출 2배... 특화제품 통한 '현지화 전략' 효과

지난해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특화 제품을 통한 현지화 전략이 중국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 순매출(22조7833억원)보다 약 두 배 많은 40조1512억원의 순매출을 거뒀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역별 매출(연결기준) 분류에서 중국을 표기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순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내부 매출액이란 생산법인이 판매법인에 제품을 넘길 때 발생한 매출을 의미한다.

중국 순매출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잠시 성장세가 꺾였지만, 2012년 순매출이 전년(23조560억원)보다 43% 급증한 28조1609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중국 순매출은 국내(5조7901억원)보다 70% 많은 9조8181

억원이다. 국내의 경우 3-11%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순매출이 22% 감소했다.

이 같은 중국 순매출 성장세는 삼성전자의 현지화 전략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취향을 고려해 로고와 스탠드를 붉은색으로 만든 'F5080 여의홍 TV', 숫자 8을 복된 숫자로 여기는 문화를 반영해 스탠드를 '숫자 8의 형태로 디자인한 'F4280 길상발 TV' 등 삼성전자는 중국 만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제품을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업계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 영향 등이 국내 순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IT·모바일(IM)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 만큼, 보조금 규제로 인한 휴대전화 시장 침체가 국내 매출 역성장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지영 기자 guty@

한-터키 FTA 1년... 완성차 수출 감소

3억3700만 달러... 6.4% ↓

현지공장 생산 확대 영향

우리나라의 대(對)터키 수출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33.6%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터키 승용차 수출액은 FTA 발효 후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억3700만 달러(약 3447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 3억6000만 달러보다 6.4%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이던 관세가 8.75%로 인하됐음에도 승용차 수출 감소가 이어지며 자동차는 2012년 터키 수출 1위에서 5위 품목으로 하락했다.

이같은 수출 감소는 현대차가 터키 현지 공장을 증설하면서 한국에서 터키로 직수

출하는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2012년 4월 유럽 시장에 차를 공급하는 터키공장의 대규모 증설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작년 9월부터 터키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은 10만대에서 20만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제 이 공장의 1분기 생산량은 4만11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8% 생산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자동차 부품 수출은 대폭 확대됐다.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품 수출은 FTA 발효 후 1년간 3억7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FTA 발효 1년전(3억3100만 달러)보다 12.7%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관세율이 3-4.5%에서 지난해 0-3.94%로 낮아지면서 주력 수출품인 기어박스, 차량용 부품품 등의 부품 수출이 늘었다. 이밖에 차량용 방열기, 차량용 로드휠 등도 FTA 발효를 기점으로 수출이 급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보급형 UHD TV '월드컵 마케팅' 열전

롯데하이마트 '16강 기원' 경품행사
이마트는 최대 20% 할인 기획전 등
삼성·LG전자 등 국내제조사들도
대중화 위해 보급형 출시 잇달아



월드컵을 앞두고 하이마트 대리점을 찾은 소비자들이 전문상담원의 설명을 들으며 UHD TV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하이마트

본격적인 월드컵 특수에 유통가의 보급형 UHD TV 판매 경쟁이 시작됐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명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 매장 등이 각종 할인혜택을 앞세워 월드컵 UHD TV 마케팅 열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월드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50인치 이상 대형 TV 중에서도 초고화질을 제공하는 UHD TV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가격을 따져보고 경제적으로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대부분인 만큼 최근 등장한 보급형 제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의 최근 한 달간 50인치 이상 대형 TV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50인치 이상 TV의 매출액 중 UHD TV 비중도 2013년 하반기 10% 이하에 머물렀지만 지난 3월 30%대를 돌파한 후 5월 현재 40%까지 치솟았다.

롯데하이마트는 보급형 UHD TV의 월드컵 특수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경품 응모 행사를 진행한다. 매장 방문 고객과 TV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증정해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성공시 승용차, 55인치 UHD TV, 투인원 에어컨, 32인치 TV, 세습기 등 총 1억원 규모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마트는 다음달 22일까지 '브라질 성공기원 TV 가격' 기획전을 통해 UHD TV 특수 잡가에 나선다. 이마트는 전국 매장에 TV 특별 판매장을 구성해 UHD TV 등 행사 모델을 구입하면 최대 20% 가격 할인, 신세계 상품권 50만원 증정, 스마트TV용 축구게임패드 및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행사상품 구매 고객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4강, 8강, 16강 진출 시 최대 5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격을 다이아트한 보급형 UHD TV에 별도의 가격 할인까지 적용한 만큼 화질이 뛰어난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국내 TV 제조업체들도 보급형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유통업계의 판매 경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3월 기존 모델보다 30% 이상 가격을 낮춘 UHD TV(49-55-65인치)를 내놨다. 특히 49인치 모델은 290만원대에 선보여 국내 UHD TV 중 처음으로 300만원 벽을 깼다.

반격에 나선 삼성전자는 이날 초 40인치 UHD TV를 189만원에 출시, UHD TV 가격을 100만원대로 낮췄다.

대우전자에 뿌리를 둔 '대우 3인방'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존 보급형 제품보다 낮은 가격의 UHD TV를 선보이며 가격

경쟁을 부추긴다.

대우루컴즈는 월드컵 특수효과를 누리기 위해 당초 8월로 예정됐던 50인치 UHD TV 출시 시점을 다음달로 두 달 앞당겼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 가격은 시장에 출시된 보급형 UHD TV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대우전자의 경우 우선 풀HD LED TV로 포문을 연다. 올 하반기 32인치, 42인치, 50인치 세 가지 종류의 풀HD LED TV를 통해 6년 만에 TV 시장에 재진출한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우선 하반기 풀HD TV를 출시한 이후 UHD TV 출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우디스플레이도 올 하반기 실속형 UHD TV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TV 제조업체들의 UHD TV 가격 인하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할인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UHD TV 대중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hoya808@

하루 한 조각 초콜릿으로 심장병 예방·다이어트까지

롯데제과 '드림카카오' 카카오 함량 높아 인기

초콜릿이 고혈압, 심장질환 등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다. 호주 모나쉬 대학 연구팀은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초콜릿 복용 연구를 실시한 결과, 매일 다크초콜릿 100g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년 후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 쾰른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에게 18주간 매일 다크초콜릿을 한 조각씩 먹도록 했더니 혈압이 20% 가까이 떨어졌다. 연구를 진행한 쾰른 대학 도버트 박사는 "다크초콜릿 성분 중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중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폴리페놀은 차아 표면의 플라크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녹차 폴리페놀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에 롯데제과와 롯데중앙연구소는 카카오 성분이 총치 예방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 1990년 미국 특허(US Patent 4908212)를 획득했다.

고함량 카카오 초콜릿 시장을 대표하는 롯데제과의 드림카카오는 2011년 150억원, 2012년 170억원, 2013년 200억원으로 매년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 중이다. 드림카카오는 카카오 함량이 기존 초콜릿보다 2-3배 이상 높아 폴리페놀 함량도 그만큼 높다. 카카오 함량이 56%인 '드림카카오56'은 폴리페놀 함량이 960mg이며 카카오 함량이 72%인 '드림카카오72'는 1353mg에 달한다.

이선애 기자 isa@

대형마트 영업규제 '박탈당한 장비의 자유...' 세미나

"유통업 위축"... 서울시장 후보들도 "지역상권과 공생 대책 필요"

"현재로서는 (마트 규제는) 충분하다. 지역 상권과 공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몽준)

"시장경제 효율성의 성과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계자간의 협의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에서 연 '박탈당한 장비의 자유, 대책을 묻는다' 세미나에서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를 폐지해 모든 사업자가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되 대형마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는 정책은 폐기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유통업 위축을 우려했다. 이광림 한국제인스토어협회 기획관리팀장은 "올해 해외 직구는 전년 동기보다 56%나 증가하고 소비위축 문제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등 소매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대영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영업규제 영향으로 연간 농어민 7000억원, 중소기업업체 1조3000억원, 임대상인 4000억원 등 협력업체 매출이 총 2조4000억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병대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마트 영업규제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이런 시인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영

업규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런 공동대표는 "대형마트의 영업일, 영업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직접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청 등에 관련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표해,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역시 참석 불가를 통보해와 세미나는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이다람 기자 zing@

수명은 두 배, 전기료는 절반 롯데마트 '컴팩트형 LED 전구'

롯데마트가 수명은 두 배 길고 전기료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컴팩트형 LED 전구 대중화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28일 '컴팩트형 LED 전구(8W)'를 1만900원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중 전문 조명매장 상품과 비교해도 3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컴팩트형 LED 전구(8W) 주 광색. 사진제공 롯데마트

컴팩트 전구는 일반형 전구에 비해 20%가량 에너지 효율이 높고, 조광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 전구시장 비중이 40%에 가깝다. 특히 일반 컴팩트 전구와 달리 수은을 함유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수명도 2.5배가량 길다. 1세대 LED 전구 모델인 일반형과 비교해도 전기료를 20%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어, 진화된 2세대 LED 전구로 불린다.

실제로 컴팩트 전구를 사용했을 때 연간 평균 전기료는 2만7380원 수준이지만 컴팩트형 LED 전구는 1만46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유지비 롯데마트 인터리어 팀장은 "향후 6년 이내 LED 전구 비중이 전체 조명 중 6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람 기자 zing@

ELLE
TIME & JEWELRY



같은 미래 꿈 꾸는 삼성전자와 KT

기술 전략 발표 시점·분야·내용 비슷...향후 성과 관심 삼성, 버려지는 에너지 변환 '하비스팅'...개인정보 보안 KT, 열·가스 통합 '스마트 에너지'...국가 재난까지 보안

삼성전자와 KT가 최근 미래먹거리 전략을 발표했다. 두 회사가 공개한 미래 기술은 발표 시점뿐 아니라 분야와 내용도 유사해 향후 전개 방식과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전자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보안'과 '에너지 저장 및 하비스팅' 등 두 분야를 미래 기술로 육성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홍콩에서 열린 '삼성 투자자 포럼'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삼성 스마트홈)과 보안(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 기술을 언급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제시한 신기술·미래기술 후보 과제 중 미래기술육성프로그램 심사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두 가지 테마를 지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사물인터넷 보안은 개인 암호화,

인증, 인터넷망 악성 트래픽 대응 등이 주요 과제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로 진행된다. 보안 기술은 앞서 삼성전자가 출시한 황장규 KT 회장이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5대 미래먹거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KT는 통합 보안 분야를 발전시켜 개인과 산업현장의 안전은 물론 국가적 재해 재난 대응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안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삼성전자와 KT 모두 공교롭게도 국내 통합보안업체 1, 3위인 에스원, KT텔레캅을 각각 계열사로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에스원과의 제휴를 통해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기술을 발전시키고, KT는 KT텔레캅과 각종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자체 보안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전략인 '에너지 하비스팅' 역시 황 회장이 언급한 5대 전략

회사명	분야	미래 먹거리	보유 기술
SAMSUNG 삼성전자	보안	사물인터넷(IoT) 보안	개인암호화 및 개인정보 보호
	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하비스팅	에너지 수확 및 전기에너지 변환
kt	보안	통합 보안	생체인식, 스마트 빌딩, 지능형 교통망
	에너지	스마트에너지	산업현장 안전 및 국가재난 대응

※ 출처: 각 사 취합

중 하나인 '스마트 에너지'와 유사하다.

하비스팅 전략은 진동·빛 등 주변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개념으로 향후 예스원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소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전자가 미래기술육성센터는 향후 생체 인식, 스마트 빌딩, 지능형 교통망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KT의 스마트 에너지는 전력뿐 아니라 열·가스 등의 에너지도 통합 관리하는 기술로, 국가 전력 위기 예방과 에너지사용량 절감(15%)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국제 사업인 KT-MEG(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을 중심으로 3년간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사업은 에너지가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최적화시킬 뿐 아니라, 통합관제센터의 에너지 흐름 현황판을 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유도, 원격 제어 등도 가능하다. 일례로 불이 켜져 있는 빈 회의실,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돌아오고 있는 에어컨 등에 대한 자동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이 기술은 KT가 수십년 간 깔고 닦아온 통신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에 따른 최적화 방안 제시, 에너지 수요 예측까지 할 수 있다. 게다가 건물 유형별(주거용, 공장 등)로 다른 에너지 사용 형태를 패턴에 따라 분석하고, 다양한 통신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지난해 향후 10년간 1조 5000억원을 출연해 국가 미래기술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KT 역시 향후 3년간 4조 5000억원을 투입해 유무선이 통합된 기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아시아 최대 보건산업展 개막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2014' 300여 기업 참여 의료 박람회 보건 분야 구인·구직도 진행



아시아 최대 보건산업 국제행사인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2014'가 28일 일산 킴엑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국내 보건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40여개국, 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관람객은 2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행사에 참가한 국내 업체는 종근당, 녹십자, 동아ST, 보령제약, 고려대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이다. 해외에선 MSD, GSK, AstraZeneca 등 글로벌 제약사가 각각의 부스를 설치하고, 국내외 기업간 수출, 투자상담, 계약체결 등을 진행했다. 또 이들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대진광역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법무처신약개발사업단 등 지자체와 국내 연구기관도 행사에 참여해 국내 보건산업 발

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성과와 사업방향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보건산업 분야 구인·구직의 장인 잡페어, 제약과 의료기기에 각각 특화된 팜페어와 메드텍페어, 투자설명회의 장인 인베스트페어 등도 함께 진행된다.

29일 오후에는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과 나눔의료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뛰어난 삼성서울병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한국외국 해외인지도 제고 부문은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한국외국인 진료 제고 부문은 강동경희대병원, 국내 인프라 조성부문은 대전광역시 등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가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까지 바이오와 메디컬 코리아 행사가 각각 열렸지만, 올해부터 한 자리에서 개최한다.

박성제 기자 psj@

선거용지 1만5000톤 제지업체 '6·4 특수'

투표용지 생산 한술·무림 대의 공신력 상승 효과도

국내 제지업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 특수를 누리고 있다. 4년 만의 선거 특수에 생산량 증대는 물론,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제지업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반짝 이익보다는 선거용지 제조사라는 대외적인 공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약 5000톤의 투표용지를 한술제지, 무림페이퍼 등의 업체들에게 발주했다. 투표용지는 각 지방 선거위원회에서, 후보자 홍보 팸플릿 등의 홍보용지

들은 각 후보들이 직접 발주한다. 제지업체는 이를 포함한 전체 선거용지 1만5000톤을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도시의원까지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후보들이 많다. 후보자 수가 2012년 총선의 약 2배인 2200여명에 달한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입되는 선거용지도 지난 총선 때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지업체 관계자는 "전체 제지시장 규모는 200만톤 규모인데 선거용지 점유율은 각 후보 인쇄소, 선관위 등에서 각자 발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 힘들다"며 "다만 투표용지의 경우 한술제지와 무림페이퍼 점유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경유 기자 thec98@



SKT, 스마트미러링 SK텔레콤은 벤처기업인 캐스트프로와 함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TV 등 대형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인 '스마트미러링'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미러링은 대형 고화질 디스플레이 장치의 HDMI 단자에 연결 후 와이파이로 간편하게 스마트 기기와 연결된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제약사 "리베이트 기준 명확히 해야"

"기준 없어 위법여부 모호" '투아웃제' 시행 앞두고 복지부에 문제점 제기

국내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양급여 정지·제외 등 과도한 행정 조치를 철회하라는 등의 요구를 정부당국에 제시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협회 등은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제기하고, 건권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KRPIA 측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위법 여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사원 개인이 인센티브를 노리고 불법 관촉활동을 했다다가 적발 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만한 조항이 없어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

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KRPIA 측은 이같은 문제점들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처벌권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두 기관의 관점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야 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사전조사 이후 의결서를 복지부로 넘기면 사실상 의결을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필수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나라 약값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까지 도입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과 요양급여 목록 등제는 서로 연관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함께 복지부에 제출했다.

박성제 기자 psj@

reddot design award winner 2011

i.fresh nano color : white / black

나노 촉매식 산화기술
일자리 원인이 되는 각종 유해균과 박테리아 99% 제거 / 4단계 공기정화

Nano Confined Catalytic Oxidation (NCCO)

공기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생활의 품질을 높여주는 오레곤 i.fresh 나노 공기청정기

Real-time Air Quality Display:
봄철 황사 알려지와 감기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요즘-당신은 어떤 공기에서 살고 있습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스마트러빙 기업 오레곤 사가 개발한 i.fresh 나노 공기청정기는 촉매식 산화 기술을 사용하여 공기 정화는 물론 각종 알러지 원인을 제거하고 건강에 중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쉬는 공기가 당신의 건강을 맡혀줍니다.

- 이중 필터 채용 - 일반 방식은 오염수 정제에만 사용된 재활용 나노 필터 / 공기 중의 대형 입자를 제거하는 프리 필터 채용
- 혁신적 디자인 - 2011년 IF 디자인 어워드, reddot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감각적 디자인
- 편리한 디스플레이 - 공기상태 모니터링 표시 / 무드라이트 기능 / 팬 속도 3단계 조절

취급점 모집 (02) 3444-9238

판매대리점
 ● 원원커뮤니티 02-364-0412 ● SM커뮤니티 02-341-0388 ● 은오마켓 070-4705-2231 ● 예성인테리어 070-772-7454
 ● 라이프앤샵 02-2675-4688 ● 하루출판 02-2191-3619 ● 대한시스템 1599-0283 ● 동해유통 051-302-4636

화학·산업플랜트~인프라 설계·시공... '글로벌 EPC' 날개

(설계·구매·시공)



11 포스코엔지니어링



모로코는 비료, 세척, 광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인광석 매장량 세계 1위 보유국으로 현재 미국, 러시아에 이어 생산량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부한 인광석 자원을 바탕으로 화학비료플랜트를 포함한 인광석 가공 설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의 대표 천연자원인 인광석을 현지 광산에서 채취해 약 2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중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설계, 구매, 시공(EPC) 및 시운전까지 일괄수행 중인 모로코 '인광석 및 비료 수송용 이송장치 건설공사'는 항만도시 카사블랑카에서 남서쪽으로 140km 지점에 위치한 조르프라스파의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 인광석 및 비료 수송용 벨트 컨베이어를 11km 구간에 걸쳐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또 '모로코 Downstream 설치공사'는 같은 모로코 조르프라스파 산업단지 내 인광석을 이송하는 Downstream 컨베이어 4.7km를 신축하는 공사로 기계, 토목, 계장 분야를 EPC 단기로 수행 중인 중이며 오는 6월 완공 예정이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발주처인 모로코 인광석 공사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계획 중인 증축공사의 추가 발주도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모로코는 회사가 처음 진출하는 지역으로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해외시장 확대 및 수주 영업 극대화'의 초석을 이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모로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산업플랜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해외시장 다변화를 선언하고 신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12년 7월 아프리카 가나에 이어 운영 중인 타코라디(TAKORADI) 발전소 증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력 기술과 C.W SYSTEM MARINE WORK 등의 해양 설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해외 사업이 다양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그동안 일관된 실적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년 전 연이은 수주에 성공한 '인광석의 보고' 모로코에 대해 관심이 높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 연이어 2건의 모로코 플랜트 건설공사 수주에 성공하며 북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2012년 1월 모로코 인광석 공사(OCP S.A)로부터 '인광석 및 비료 수송용 이송장치 건설공사' 낙찰통지서(LOA : Letter of Agreement)를 접수해 모로코 플랜트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 기업은 같은 해 6월 모로코 인광석 공사에서 발주한 '모로코 Downstream 설치공사'를 연이어 수주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 해외수주 현황

*출처: 포스코엔지니어링

날짜	나라 및 사업명
2012년 1월	모로코 인광석 PJT 이송장치 수주(북아프리카 첫 진출)
2012년 2월	베트남 노키아 현대폰 제조공장 신축공사 수주
2012년 6월	모로코 인광석 PJT Downstream 설치공사 수주
2012년 6월	아프리카 가나 Takoradi T2 Expansion 수주
2012년 12월	태국 PTTGC Convert Heavy Gas to Olefins Feedstock Project 수주
2013년 6월	가나 FUNKO Shorebase Development Project 수주
2013년 6월	인도네시아 Hasang 수력발전소 수주
2013년 7월	태국 TT Phenol Train II Project 수주
2013년 11월	브라질 CSP ASU 프로젝트 수주(중남미 플랜트시장 첫 진출)
2013년 11월	파키스탄 선박수리시설 조성사업 PJT 수주
2014년 1월	태국 PTT LNG 터미널 확장공사 수주
2014년 2월	말레이시아 건설부 발주, 종합병원 신축공사 수주



경쟁력 키워 신성장동력 공략

모로코 인광석 프로젝트부터

베트남 현대폰공장 신축까지

아프리카·동남아서 입지 굳혀

올 해외사업 비중 60% 목표

수행중인 프로젝트 안착 주력

엔지니어링 집중·내실 다지기

사업수행 능력 선진화 구슬땀

등 기존의 거점지역인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신규 시장인 아프리카의 시장 확대를 발판 삼아 향후 신성장동력 개척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베트남에서 '노키아 현대폰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박차

를 가한 결과 수력발전, 항만건설, 산소 설비 플랜트, 종합병원 건설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회사의 주력분야인 석유화학, 오일 및 가스 플랜트뿐 아니라 산업 건축 및 플랜트, 인프라 분야에서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는 금호P&B와 KPA IV 프로젝트, 금호폴리텍 합성고무 생산공장 등 국내 굵직한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를 잇달아 수주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정유&가스, 석유화학 및 산업 플랜트와 도로, 철도, 항만, 수력 등 인프라 분야 등 현재 수행 중인 EPC 프로젝트를 최고의 품질로 안전하게 공기 내에 완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신규 진출한 가나, 모로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해외사업의 비중을 60%까지 늘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본연의 경쟁력인 엔지니어링 역량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선진사회의 제휴 및 자체 핵심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EPC 사업수행능력을 선진화해 '글로벌 EPC Top Player'로 도약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박태진 기자 tipippo@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 1월 모로코의 '인광석 및 비료 수송용 이송장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포스코엔지니어링 사상 첫 모로코 진출 사업이다. 이를 발판으로 '모로코 Downstream 설치공사'도 수주했다. 사진은 인광석 수송용 이송장치 건설공사 현장. 사진제공 포스코엔지니어링

'기술로 가치 창조하는 기업' 성장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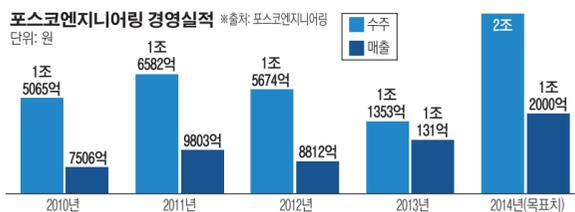
"올해 2조 수주·1조2000억 매출 목표"

'기술력+포스코 패밀리' 시너지 5년간 실적매출 꾸준한 상승세

포스코엔지니어링은 1976년 창립 이래 '내실, 집중, 변화'를 꾀하며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산업의 역사와 그 명맥을 함께 해오고 있다.

2008년 회사의 비전을 '기술로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The Best Value-ridge Engineering Partner)'으로 새롭게 선포하고 보다 나은 인간생활을 창조하는 글로벌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 포스코 브랜드의 핵심가치인 '신뢰'를 기반으로 '열린경영', '창조경영', '환경경영'을 실현해 나가며 포스코 패밀리의 'Engineering Leader & Provider'로서 신성장사업 분야의 시너지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나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단순 설계, 감리, 시공 등의 기



존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구매), Construction(시공), Management(운영)을 총괄하는 창의적 EPC 솔루션을 제공하며 해외시장과 국내시장 모두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적도 상승세다. 물론, 국내의 경기 영향으로 2012년과 2013년 해외수주 실적이 잠시 주춤했지만 매출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올해 수주 목표와 매출액 목표를 각각 2조원, 1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박태진 기자 tipippo@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관리능력, 포스코 패밀리 시너지를 극대화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링 기반의 '글로벌 EPC Top Player'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로코 △가나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으로 현지에서 다수의 EPC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정유&가스, 석유화학 및 산업 플랜트와 도로, 철도, 항만, 수력 등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외 수

추천 경매 물건

용도	소재지	대지 (㎡)	건물 (㎡)	건물 (평)	감정가(원)	최저 입찰가(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계	사건번호	
아파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571 장안3차현대홈타운 302동 14층 1404호	41	12.4	84	25.5	390,000,000	312,000,000	80.00%	6월 23일	북부3	2012-2804
아파트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류 102동 11층 1103호	54	16.2	85	25.7	800,000,000	409,600,000	51.20%	6월 24일	서부1	2013-12897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49 북가좌삼호 101동 16층 1610호	34	10.1	85	25.6	340,000,000	272,000,000	80.00%	6월 24일	서부1	2014-1245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3 무악청구 109동 15층 1505호	44	13.4	85	25.6	380,000,000	304,000,000	80.00%	6월 24일	서부8	2013-23521
아파트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 110동 7층 705호	58	17.7	134	40.6	833,000,000	666,400,000	80.00%	6월 26일	중앙8	2013-32414
아파트	경기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 114동 5층 506호	117	35.5	88	26.8	820,000,000	656,000,000	80.00%	6월 24일	안양4	2011-9212
아파트	경기 평택시 용이동 470-1, -2, -3 평택용이2차부리지 오 208동 10층 1002호	82	24.9	130	39.3	390,000,000	273,000,000	70.00%	6월 23일	평택4	2013-15888[1]
아파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952 벚산타운4단지 403동 16층 1606호	40	12	85	25.7	344,000,000	240,800,000	70.00%	6월 20일	수원1	2013-40710
아파트	인천 남구 주안동 1606 진흥 109동 12층 1206호	32	9.8	60	18.1	190,000,000	133,000,000	70.00%	6월 23일	인천16	2014-6758
아파트	인천 남동구 논현동 618-1 새타마을 신일해피트리 710동 15층 1501호	84	25.3	156	47.2	476,000,000	333,200,000	70.00%	6월 24일	인천26	2014-1025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571 장안3차 현대홈타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571 장안3차현대홈타운 302동 14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6년 준공된 2개동 137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14층이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장안동근린공원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고 장평초, 동국사대 부속중, 휘경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 감정가 3억9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3억120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6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3계, 사건번호 2012-2804.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류 102동 11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6년 준공된 4개동 144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2층 건물 중 11층이다. 1호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4호선 신용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다. 주변에 이마트, 중대부속병원, 성춘공원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다. 최초 감정가 8억원에서 3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4억960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6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1계, 사건번호 2013-12897.



◇경기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 경기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 114동 506호가 경매로 나왔다. 1981년 준공된 23개동 856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5층 건물 중 5층이다. 과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다. 주변에 중앙공원, 과천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청계초, 과천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 감정가 8억2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6억560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6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4계, 사건번호 2011-9212. 강영관 기자 kwan@

'구조조정' 건설사, 분양시장서 힘 낸다

금호산업·경남기업·신동아건설 동탄2 세종시·평택서 회생 발판 택지구-재건축 중심 흥행 기대

분양시장에 혼동이 불면서 그동안 내실 쌓기에 집중했던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들이 분양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들의 분양성적이 경영정상화 시기를 가능케 하는 면에서 건설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경남기업, 신동아건설, 동문건설 등이 분양시장에 대거 나서며 회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분양 8개월째 감소세... 10년만에 최저치

4월 2594호 줄어든 4만5573호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선 금호산업은 이달 청약의 받은 '길음역 금호아울림'이 조합원 물량과 특별공급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76가구 모집에 158명이 청약의 신청해 평균 2.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무궁화대단지 재건축 분양하는 '홍제 금호아울림'에도 일반분양 91가구 모집에 4배수 많은 400여건의 청약신청서가 접수됐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동탄2신도시에서 4일 만에 344가구를 모두 완공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어 내달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서 1142가구, 하반기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1030가구)-부산초량1-1구역(914가구) 등을 선보이며 흥행돌풍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신동아건설은 하반기 롯데건설과 공동으로 세종시 2-2생활권에서 1944가구 대규모 분양에 나서고 동문건설은 오는 9월 충남 천안 신부동 일대에 '천안 신부동 동문굿모닝힐'을 분양한다. 최고 32층 23개동 2144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합원 물량 800여 가구를 제외한 13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사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살아나니 그동안 사업을 미뤄 왔던 구조조정 건설사들도 분양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택지구와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성이 높고 위험은 덜해 워크아웃 졸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량이다.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 대비 435호 감소한 2만323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월 대비 1790호 감소한 2만4292호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방은 기존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해 전월 대비 804호 감소한 2만1281호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박상영 기자 sympark@

동아제약 '판피린 큐'

6가지 복합성분... 다양한 감기증상 해결

콧물·기침·오한 등 다양한 증상을 한꺼번에 동반하는 환절기 감기에 종합감기약 '판피린큐(동아제약)'가 대체다. 28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최근처럼 극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환절기에는 감기환자의 60%가 호흡기 증상과 함께 발열과 오한까지 동반한다. 환절기의 일교차가 신체의 체온조절 기능을 떨어뜨리고, 현대인들의 만성적 운동부족과 영양불균형까지 더해지며 몸의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판피린큐는 이 같은 종합적 감기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특히 높은 효능을 보인다. 제품에 함유돼 있는 6가지 복합성분이 오한·발열·근육통뿐만 아니라 콧물·알레르기성 비염·기침·기관지염·가래까지 한꺼번에 잡아준다.

판피린큐는 액상으로 출시돼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고, 위장에 부담도 적다. 1병당 용량은 20ml로 휴대성이 좋다. 5병 한 묶음으로 포장해서도 판매한다. 포장지 끝에는 감기·몸살·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를 캐릭터로 표현해 누구나 쉽게 약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겨울보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늘어난다"며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감기 증상이 온다고 느꼈을 때 약을 복용하면 감기를 초기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동아제약의 판피린큐는 50년 이상 된 장수 브랜드다. 1956년 일반의약품 허가를 받고 정제 형태로 1961년 처음 생산·판매했다. 이후 1961년에는 알약으로 출시됐다가 1977년부터 현재의 액상형태로 변했다. 판피린큐는 액제 감기약을 대표하는 약으로 자리 잡으며 매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효자상품'이다.

종근당 '모드콜플루 시리즈'

물에 타 마시는 감기약... 기침·콧물에 효과

종근당이 최근 물에 타서 마시는 감기약 '모드콜플루 코프'와 '모드콜플루 노즈' 등 2종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제품은 모두 해열·진통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모드콜플루 코프는 기침을 억제하는 중추성 진해제와 가래를 제거하는 거담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성분 등을 함유해 기침감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모드콜플루 노즈는 콧물 등으로 막힌 코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비충혈 제거제와 알러지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를 복합 처방해 코감기에 효과적이다.

종근당은 이미 주·야간 시간대별로 복용할 수 있는 모드콜플루 올데이와 나이트 등 2종을 선보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 증상별 치료에 적합한 모드콜플루 코프와 노즈를 출시하며 종근당은 감기약 4종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모드콜플루 시리즈는 물에 타서 손쉽게 복용할 수 있으며 흡수가 빠르고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다. 또 감기 회복에 필요한 수분을 동시에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한 픽토그램을 적용해 소비자의 편의성



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모드콜플루 시리즈는 다양한 시간대와 증상에 맞춰 복용이 가능한 차별화된 감기약"이라며 "환절기를 맞아 복잡한 감기 증상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한미약품 '장쾌락시럽'



임산부 먹어도 안전한 변비약

만삭인 임산부가 복용해도 태아와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변비약 '장쾌락시럽(한미약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8일 한미약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변비 환자의 68%가 여성이고, 그중 30~40대의 대다수는 임신·출산,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만성변비를 앓은 적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변비약은 자궁 수축을 일으켜 유산이나 조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변비약을 자주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장이 스스로 운동하려는 활동력을 떨어뜨려 변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락탈로오스'가 주성분인 장쾌락시럽에 주목하고 있다.

락탈로오스는 대변에 포함된 수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삼투압 효과를 일으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한다. 배변활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기 때문에 복용이나 설사, 더부름함이 없다.

또한 분해 과정에서 장의 소화기능에 필수적인 비피더스균을 증식시켜 장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장쾌락시럽은 다른 변비약과 달리 락탈로오스라는 순수 성분이 대부분이어서 임산부는 물론, 1세 미만 영아부터 임산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안전하게 장기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변비약은 7일 이상 복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쾌락은 한 병에 30개 포장으로 판매되고 날개로도 구매할 수 있다. 영유아는 1일 5ml, 소아는 1일 10ml, 성인인 1일 15ml(1포)를 복용하면 된다. 변비가 심한 경우 1일 2-3포를 복용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장쾌락시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기 가능한 RFID가 부착돼 유통도 안전하게 이뤄진다.

가정 필수 상비약
가족 건강 지킴이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 내 필수 상비약들은 건강한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병마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상비약을 구비해 놓는 것은 필수. 몸에 이상이 생겼지만, 집에 약이 없다면 그야말로 낭패. 미리 준비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만병의 근원 감기에서부터 소화제, 관절염 치료제 등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온 가족 필수 상비약들을 소개한다.

김정유·조성준·박성제 기자 thec98@



LG생명과학 '리튬 프로바이오틱스 듀얼'



500억마리 유익균 면역력 쑥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며 밤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면서 감기·비염·천식 등 면역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체내 면역력이 약해지면 짧은 시간 내에 면역력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면역 관리가 필요하다.

LG생명과학의 '리튬 프로바이오틱스 듀얼'은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잦은 소화불량, 변비 등의 증상을 개선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품이다. 특히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등 10여종의 균을 500억 마리 이상 배합해 효능을 높였다. LG생명과학이 사용한 유산균은 미국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캡슐화 유산균으로, 2차 캡슐에 장용성 코팅을 적용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선택 시에는 유산균 마리 수, 생균 종류, 장내 생존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와 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소장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많은 유산균을 섭취해 생균의 장 속 생존율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소장에서 면역, 항균물질 형성, 유해균 생성 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락토바실러스가 함유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대장균 증식을 억제하고 장운동과 배변 활동 강화 등의 효능이 있는 비피더스 같은 유익균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장 속에는 인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존재하는데 장에서 활성화된 이 세포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장 속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식단은 피하고 과일과 야채 등을 자주 섭취하면 좋다. 식후 가벼운 운동을 통해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유산균의 마리 수, 배합된 유산균의 종류, 장내 생존율을 높이는 기술력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며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으로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SK케미칼 '트라스트 패취'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어머니가 "만족"

아픈 관절 부위에 부착해 국소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가 관절염 환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나들이철 관절염 때문에 고생인 어머니들에게 특효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28일 SK케미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여성의 관절염 유병률은 남성의 4배를 웃돈다. 특히 70세 이상은 36.7%가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은 장기적 치료가 불가피한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기존 먹는 관절염 치료제들은 장기 복용할 경우 위장과 전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중의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부작용 없는 패치형 관절염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위인 무릎에 부착시켜 약물을 지속적으로 환부로 전달, 먹는 약의 부작용은 극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시킨다. SK케미칼의 트라스트가 대표적 패치형 관절염 치료제다.

'세계 최초의 무릎 관절염 전문 치료 패치'인 트라스트 패치는 소염진통 약물인 '피록시카ם'을 TDDS(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경피약물 전달체계) 기술을 통해 48시간 동안



동일한 농도로 아픈 무릎에 직접 전달해준다. 약효가 우수하면서도 환부인 무릎 관절에만 약물을 전달해 혈액에서의 약물 농도는 극소화했다. 기존 먹는 약의 위장·전신 부작용을 최소화시켰다.

SK케미칼의 트라스트 패치는 활동이 많은 관절 부위에서도 잘 떨어지지 않아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인기가 높다. 또 한 번 부착으로 약효가 48시간 동안 지속돼 환자의 편의성도 함께 만족시킨다.

일양약품 '위제로 정'

소화불량·속쓰림 썩~... 위 건강도 도움

일양약품의 고단위 복합소화제 '위제로 정'이 과식, 과음,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특효약이 되고 있다.

28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위제로 정은 소장 내에서 직접적 작용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프로자임, 리파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의 소화효소제가 함유돼 있다. 담즙 분비와 배출을 촉진시키는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도 함유돼 소화기 질환에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위제로 정은 소화효소제와 함께 제산제 등을 함유해 소화 촉진과 속쓰림에 효과가 있다. 방향성 건위 생약성분도 함유돼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위제로 정은 계피와 회향유 등이 첨가돼 입안의 상쾌함까지 더해졌다. 복용 시 청량감과 소화불량으로 더부룩한 현대인들의 속을 시원하게 지켜준다. 위제로 정은 일반의약품으로 전국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일양약품은 최근 기존 90포 포장에서 3포로 구성된 '위제로 정 3포 소포장'을 추가로 출시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휴대와 복용의 편리성을 강화한 제품으로 언제나 간편하게 복용하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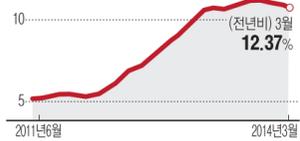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엔 위제로 정이 패치도 기존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면서 따뜻한 이미지를 강화했다. 일양약품은 앞으로 색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며, 위제로 정의 인쇄 광고, 브로셔 등의 콘텐츠도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있다. 이 같은 색깔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위제로 정에 대한 인식과 상기를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제조업·부동산·증시...美 경제지표 호조

미국 내구재주문 증가율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상승률 추이



S&P500지수 추이



내구재 주문량·주택 가격·S&P500지수 상승세 “자본재 비중 적고 최근 소비심리 둔화” 신중론도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을 비롯해 소비심리가 개선됐고 부동산시장 역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S&P500지수는 27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4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이는 0.8% 감소할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방산재 주문이 39.3% 급증하면서 내구재주문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방산재 주문의 증가폭은 2012년 12월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운송장비 주문은 2.3% 늘었다.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를 제외하면 내구재주문은 4월에 0.1% 증가한 셈이 됐다.

민간 경제연구기관 컨퍼런스보드의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3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가 78.5에서 80.4로 올랐고 6개월 뒤 경기를 가능할 수 있는 기대지수는 전월 83.9에서 84.8로 상승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보드 지프 담당 디렉터는 “단기적으로 고용시장과 개인 재정을 비롯해 경제 전망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부동산지표도 호전됐다. S&P/케이스실러의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3월에 0.9% 상승했다.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한 3월 주택가격은 1.2% 상승했다. 연율 기준으로는 12.4% 올랐다.

조 라보그나 도이체방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집값 상승은 가계에 분명 좋은 것”이라면서 “주식시장도 상승하면서 가계의 부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성장 기대가 확산하면서 증시의 밸리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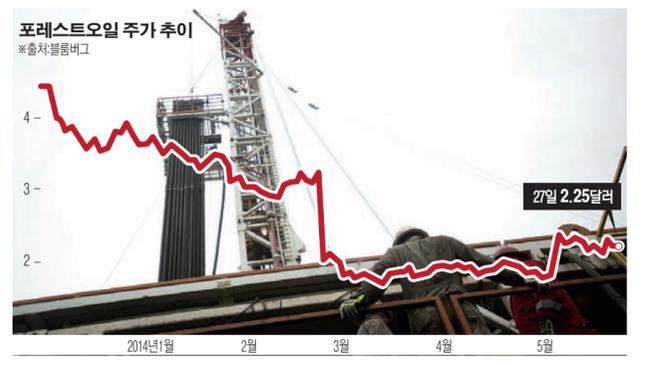
그통신은 분석했다. S&P500지수는 이날 11.38포인트(0.60%) 상승한 1911.91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69.23포인트(0.42%) 오른 1만6675.50을, 나스닥은 51.26포인트(1.22%) 상승한 4237.07를 기록했다.

다니엘 스킨리 모건스탠리웰스매니지먼트 투자전략가는 “내구재주문을 비롯한 매크로 데이터가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면서 “(지표 개선은)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표 개선에도 신중론은 여전하다. 내구재주문과 관련해 기업들의 자본지출을 나타내는 비방산 핵심 자본재 주문은 1.2%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월가는 0.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방산을 제외한 자본재주문이 국내 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2분기 성장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소비심리 역시 앞서 발표된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신뢰지수가 5월 들어 81.8로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



美 세일업계는 위기감 고조

채굴 설비투자 부담에 부도 직면한 기업 늘어

부채규모 4년 동안 2배 늘고 이자 비용만 매출 10% 이상 HE&P, 2년 연속 적자 수렁

미국 세일산업이 채굴업계의 부도 사태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일 채굴업계가 과도한 설비투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일 채굴업계의 부채 규모가 지난 4년 동안 2배 늘었지만 매출은 5.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통신은 전했다. 업계 주요 10개 기업은 이자비용으로만 매출의 10%를 쓰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정유사인 엑손모빌의 0.1%에 비하면 100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벤자민 텔 맥머리저너지 매니징 파트너는 “주요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전에 봤던 것처럼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갈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지주사인 로우스는 자회사인 세일에너지업체 HE&P의 매

각에 나섰다. HE&P는 지난 1분기 2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HE&P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이익을 내지 못했다.

HE&P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자 세일유 개발에 주력했지만 사업은 호전되지 못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블룸버그의 집계 따르면 61개 세일 탐사·채굴업계의 부채는 지난 1분기 기준 1636억 달러에 달했다.

업계 대표기업 중에서 포레스트오일을 포함해 그리치페트로레움과 퀵실버리소스는 이자비용만 20% 증가한 상태다.

데이빗 어드먼 퀵실버 대변인은 “레버리지 가 과도했다”면서 “1분기 이자비용이 매출의 45%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리치는 1분기에 5200만 달러를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그리치의 같은 기간 이익보다도 많은 것이다.

재정악화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비용감축을 촉구하면서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있는 광산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61개 세일업계의 이자비용은 지난 1분기에 2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매출의 4.1%에 해당하는 것이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



브라질 월드컵 반대시위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경찰과 마네킨가 참가한 축구경기장으로 행진하는 원주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이날 시위대는 정부의 원주민 정책과 막대한 2014 브라질 월드컵 개최비용에 대해 항의했다. 브라질리아/로이터연합뉴스

커피숍 이어 레스토랑까지... 스타벅스 사업확장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외식사업에 첫발을 디딘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음식점 체인 라블랑제(La Boulangerie)를 통해 커피를 넘어 외식사업까지 손을 뻗게 될 전망이다.

린다 밀스 스타벅스 대변인은 오는 6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 라블랑제를 레스토랑으로 확장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블랑제는 햄버거를 비롯해 맥주와 와인, 컵라면, 밀크셰이크를 판매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2년 베이커리 라블랑제를 인수했다. 스타벅스는 최근 커피를 넘어 새로운 포맷의 사업에 대해 여러 실험에 나서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사는 고급 차(차) 전문점 티바나(Teavana) 인수해 지난해 뉴욕 맨해튼에 티바나 매장 1호점을 오픈하기도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리치머니 ‘버핏과 점심’서 얻은 투자 조언

“유망株 골라 일주일에 한번만 가격 체크”

누구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는 전설적인 대가처럼 뛰어난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버핏처럼 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성공한 가이 스피어(사 진)라는 펀드매니저 사례를 소개했다.

스피어는 옥스퍼드대와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을 졸업하고 지난 1997년 9월 저가의 가치주에 초점을 맞춘 헤지펀드 아쿠아마린캐피탈을 설립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8년 약 65만 달러를 기부하고 ‘버핏과의 점심’을 통해서 조언을 얻은 것이 좋은 투자자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1억8000만 달러(약 1842억원) 규모의 아쿠아마린펀드는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미국증시 S&P500지수를 5.5%포인트 웃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버핏과의 점심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가이 스피어 펀드매니저 “자주 확인하는 습관은 충동적 거래로 이어져 재무제표 등 분석도 중요”

교훈으로 스피어는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는 “내가 항상 올바른 결정만을 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없애려면 인간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결점이 많은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나 자신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격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스피어는 강조했다. 확인할수록 단기적이며 충동적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 스피어는 “많은 일주일



에 한 번 가격을 확인한다.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도 꼼꼼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해당 업체의 공식 재무제표와 분

기 보고서, 위임장권유신고서(proxy statement)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월가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읽는다.

스피어는 “나의 투자영감은 대부분 회사의 공식보고서로부터 나온다”며 “월가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투자자는 여기에서 한발짝 벗어나 이런 광기를 피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는 인내와 독립심, 군중심리 무시 등을 미덕으로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지멘스, 佛알스톰 ‘구애 작전’

의회 로비 등 인수 적극 추진...GE도 이사회 설득 나서

독일 지멘스가 프랑스 최대 엔지니어링 업체 알스톰 공식 인수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에 적극적

으로 로비하는 등 알스톰 인수를 위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라는 평가다.

이번 인수전 경쟁업체로 손꼽히는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을 제치기 위해 회

사는 프랑스 의회에 지멘스와 알스톰의 결합은 철도와 에너지 부문에서 “두 개의 챔피언을 탄생시키는 것”이라는 개념을 적극 어필하는 등 공식 인수를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지멘스와 GE 경영진은 지난 몇 주간 각각 프랑스 당국자와 비공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멘스와 GE의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초반 알스톰 이사회가 GE의

인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GE가 유리한 형국인 듯했으나 프랑스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인수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편 GE도 장기적인 성공을 놓고 봤을 때 자사가 알스톰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스톰 이사회 측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포트

필그림, 힐사이어 인수 추진

미국 식품업계에 대형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2대 닭고기 생산·유통업체 필그림 프라이드가 종합 육류업체 힐사이어브랜드를 64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그림은 힐사이어에 주당 45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는 22%의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힐사이어는 최근 피너클푸드 인수를 발표한 바 있어 미국 식품업계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그림은 합병이 성사되면 연매출 124억 달러 규모의 대형 식품업체가 탄생하게 된다면서 양사의 브랜드와 유통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필그림은 피너클 인수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그림이 힐사이어를 인수하게 되면 힐사이어의 피너클 인수는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힐사이어는 43억 달러에 피너클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美, 기자 취재원 공개거부권 인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자의 취재원 공개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폭스뉴스의 제1원터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난해 12월 뉴욕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극장에서 제임스 홀스라는 청년이 총을 난사해 12명을 살해했다. 원터 기자는 의명의 취재원으로부터 홀스가 범행 계획을 상세하게 적

어놓은 노트를 입수해 특종을 터뜨렸다.

홀스의 변호인은 원터 기자의 보도로 홀스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법원은 원터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이 명령을 어기면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터 기자는 폭스뉴스 본사가 있는 뉴욕주 법원에 다시 항소했다. 뉴욕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기 때문에 주 대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이 모두 원터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번엔 연방대법원도 취재원 공개 거부권을 인정했다.

中형다그림 백두산수, 해외 진출

중국 대기업인 형다그림이 백두산(중국어 칭바이산) 광천수를 무기로 세계 생수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27일(현지시간) 중국인문망이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백두산 광천수 생산을 본격화한 중국 유명 부동산 개발 형다그림은 지난 20일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 유럽 13개국 43개 판매상과 광천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번 유럽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곧 미주 아시아 각국의 판매상과도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형다그림 관계자는 “백두산 광천수는 지하수 300미터 깊이의 수맥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원수로 사용한다”며 “20여종의 천연 미량원소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과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소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3대 광천수로 꼽히는 백두산 광천수로 형다그림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중국 업계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 광천수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끌어올려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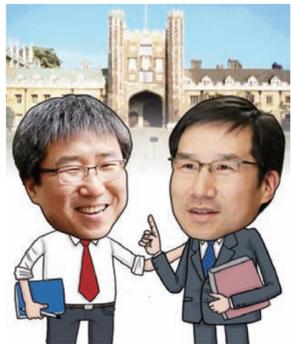
최효찬의 명문가 자녀교육 따라잡기 장재식家

평생 믿줄치며 공부한 아버지

700여년 케임브리지대학 역사상 최초의 '형제 교수'를 영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배출했다.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경제학)와 장하석 교수(과학철학)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필자는 이 사실을 처음 접하고 놀랐기만 했다. 학문적 영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도도하기로 이름난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형제 교수가 한국인이란니, 믿기지 않았다.



이들의 아버지인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인터뷰하면서 필자는 또 한 번 놀랐다. 장 전 장관의 연구실이 여느 학자의 책상보다 더 학구적이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과 영어사전, 일러사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영어와 일어로 된 경제 관련 책이 여러 개의 포스트잇이 붙여진 채 놓여 있었다. 일어는 독학으로 자유롭게 구사하며 일본 경제와 관련한 책은 아직도 일러원서를 본다. 가위로 오린 신문 사설들이 눈에 띄었는데 하나같이 주요한 내용 밑에는 밑줄이 죽죽 그어져 있었다. 책이나 신문을 볼 때 밑줄 긋기는 오래된 습관인 듯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가 안다'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의 책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세로 아버지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재식 전 장관은 자녀들에게 평생 믿줄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로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알아서 스스로 공부했다. 그는 또한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42살 때 경제학 박사(중앙대)과정에 다니면서 또 밑줄 치며 공부했다. 어쩌면 집안에서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는 셈이다. 장재식 전 장관은 작은 집에 2500여권의 장서를 보관해 오다 집이 좁아 1200권은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한편 장하석 교수는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원서를 읽었는데 이게 영어 정복의 지름길이었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 더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영어원서로 읽기 시작해 중학생 시절 이미 11회독을 했다. 한국어 번역본은 12회독을 했다고 한다. 장하석 교수는 영국 교수 못지않게 완벽한 문법을 구사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영영사전으로 영어원서를 반복해 읽은 데 있다'고 한다. 장하석 교수는 최근 EBS에서 '과학, 철학과 만나다' 주제의 강의로 호평을 받고 있다.

장재식 전 장관은 1962년 결혼을 해서 1980년까지 20평 주택에서 살았다. 더욱이 국제정 차장 시절과 주택은행장 시절에도 20평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아이들이 공부할 책상이 없어 밥상으로 대신했지만 그들은 자라 세계적 경제학자와 과학철학자가 되었다. 형제는 용감했다는 말처럼 말이다. 책상이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장재식 가는 3대에 걸쳐 독립투사와 장관, 교수 등 수많은 인사를 배출하면서 큰 족적을 남긴 유례없는 가문이자 호남의 '천재집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세계적 인재를 배출하게 된 원동력은 다름 아닌 밑줄 치며 공부하는 아버지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자녀경영연구소장

신율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세간의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직언을 한다는 강직한 성품, 그리고 정치인 수사 때 보여준 똘스 등 미담 일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수임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여론은 급반전하기 시작한다. 하루 일당 1000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실제 대법관 출신들이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 일 년에 2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수입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일반적 수입을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법조계에도 놀란 모양이다. 안대희 후보자는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낸 이후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입을 올렸던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또 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국제정 세무조사감독위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시점이 작년 11월 18일이다. 그런데 위원장 취임 보름 후, 나인힐스라는 기업의 법인세 관련 소송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안대희 의혹, 박근혜 정부의 짐

변호를 맡은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 먼저 앞의 경우, 즉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순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은 전관예우의 관행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전관예우는 따지고 보면 관피아(관료+마피아)와 다를 바 없다. 자신이 근무하던 관청과의 연줄 때문에 퇴직 후에도 취직해 월급을 받는 것이나 법률가가 퇴직 후 전관예우로 돈을 버는 것이나 따지고 보면 똑같다. 단지 관피아보다 버는 액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인세 관련 사건을 맡은 사실은 그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따지고 보면 직업윤리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장이 자기 혼자 도망간 것도 직업윤리에 관한 것이고, 해경이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것도 바로 직업윤리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이런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대희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벌었으니 자신의 돈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안 후보자의 발언은 펀트가 안 맞기도 너무 안 맞는다.

우리는 안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관예우의 수혜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

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도 이런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도 문제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 동안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은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먼저 몇 번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를 미리 예방하거나 적결할 수 있는 법안인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야는 서로 네 맞을 하면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굳이 안대희방지법을 주장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정작 김영란법은 통과 안 시키고 안대희방지법을 새롭게 주장하고 나서니 앞뒤가 안 맞을 뿐 아니라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정지 공세로 비쳐질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안대희 후보자의 문제가 정치공세로 비쳐질 경우 문제의 핵심은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안대희 후보자가 총리가 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정도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한 마당에,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 의혹은 박근혜 정부에도 상당한 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온라인 와글와글

미성년 성추행범에 집행유예, 참 가깝다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어린이를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 씨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이들에게 입맞춤 이상 사고가 터져야 그나마 징역형이 떨어지는 게 마치 사고를 기다리는 듯한 이상한 나라의 법 해석", "정신병자를 집행유예 처리하다니", "우리나라처럼 법이 가벼운 나라도 드물다" 등 처벌 수위에 대해 비판했다. 이 밖에도 "더럽다 더러워", "우발이던 다 되는 나라", "술방망이 처벌이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모르는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가" 등의 의견이 시선을 끌었다.



○...전자담배가 금연도구로 효과가 있다는 해

의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방법 등 한 계성을 지적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소식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자담배로 효과 봤다", "전자담배 사서 3개월 피우고 전자담배매저 끊고 지금 금연한 지 5년째", "전자담배도 증독된다", "전자담배 광고 보면 금연을 거의 100% 성공하는 것처럼 해왔는데 전자담배를 피우도 계속 금연현상이 일어난다" 등 다양한 경험담을 털어냈다. 이 밖에도 "담배도 끊고 하루에 2500원 아까자고 전자담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전자담배를 못 끊겠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자담배가 있어도 못 끊을걸", "끊을 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끊는 게 제일 낫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우람 기자 hura@

오늘의 MC 이투데이

www.baekn.com

'시정률의 제왕' MC 맡은 이휘재



미국남달콤은 27일 이휘재를 인터뷰했다. KBS W 예능 프로그램 '시정률의 제왕'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휘재는 "요즘 예능이 정말 전성시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출사표는 딱 하나다. 매 주 열심히 하자는 것이다. 파일럿으로서 '시정률의 제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오였다. 결국 이렇게 정규 편성이 되지 않았다. 만일 '다음주에 녹화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도 이번 주를 열심히 해나자는 생각이"고 밝혔다. 이휘재가 MC를 맡은 '시정률의 제왕'은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을 위해 한 주간의 시청률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연예계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는 토크쇼다. 이휘재는 "연예인 뿐 아니라 PD, 기자에 대한 비화도 낱알이 공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이휘재는 개그맨으로서 연예계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과 관련해 "물론 불편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자신을 반성하겠다. 제가 직접 본 것이거나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것만 이야기할 것이다. 흑사라도 녹화 도중 이야기를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시청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휘재는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호란, 레이디제인, 박성광 등 MC 군단 중 봉만대 감독과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에 대해 "입담이 워낙 좋고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엄청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휘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언급에 대해 "복덩이들이 태어나서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털어냈다. 이꽃들 기자 flowerlee@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LG 'G3' 런처서 배틀 벗었다...신무기답게 성능 역대 최고
- 2 유시민 "6월 4일에 대통령 선거하면 정권 바뀔 것"
- 3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21명으로 늘어
- 4 유성나 프랑스서 체포... 국내 송환까지 6개월 걸릴 수도
- 5 시화공단 화재, 시민들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하루 만에..."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타올(주)

SPRING

이웃

www.itowelmall.co.kr ISO 9001 인증업체 대표번호 02) 755-1091

기고

기업·사회의 공존, CSR 넘어 CSV로

여러 명의 사람이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활동은 민주적 경제활동의 산물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경제활동엔 책임이 따르는데, 그래서 기업들은 사회를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사회공헌이란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허훈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

이전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른 이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와 같은 일회성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금, 현물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일회성 기부는 소외계층에게 한순간의 기쁨만을 남겨주고 그들의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줄 뿐이다.

중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만 아니라 aT에게도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농어민의 판로를 확대하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은 aT에게도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소외계층 지원 지원 외에 또 다른 가치는 미래인재 육성에 있다.

그렇기에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책임)에서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 창출)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기부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에서 소외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기업에도 일정 부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은 aT의 사회공헌활동에도 큰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

농식품산업은 식품이라는 감성적 소비가 큰 축을 차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수요에 맞춰 aT는 농식품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aT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농식품 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이다. 이 활동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소외계

해 현지 aT 임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aT는 지난 2005년 시행된 국토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오는 늦어를 전라남도 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전남 지역에 건립되는 혁신도시에는 aT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생각해보면 기관이 지역 소도시로 이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세를 높이는 것 이상의 CSV 창출의 큰 기회일 것이다.

aT는 나주에 있는 화훼분야 특목고와 연계하여 신사옥의 조경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주말 등 학생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조경관리의 일정 부분을 위탁하여 진행하면, 해당 학생들은 장학금과 함께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aT는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위한 '바른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두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농가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예기한다. 하지만, 효과적인 CSV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

aT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도약의 시작은 지역과의 CSV 창출일 것이며, 이 CSV는 aT의 지속적인 목표이자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고양터미널 화재, 또 오락가락 정부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이어 또다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6일 발생한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에 따른 사상자 수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수차례 반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오전 11시 20분께 도재난본부의 사망자 7명, 부상자가 2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격인 도재난본부와 현장의 일선 소방서가 파악한 사상자 수는 달랐다.

실제로 일선 소방서 측은 "사망 6명, 부상 27명"이라고 발표했고, 이후부터 사망자 숫자를 놓고 재난본부의 발표는 5명→6명→7명→5명→6명으로 계속 번복했다.

그리고 최종 사망자 수를 파악한 시점은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방당국의 사후조치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선자와 사망자, 구조자 수를 놓고, 수차례 반복해 논란이 된 게 잊지 않는데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망자 수는 아직도 반복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바 있는 반복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해경은 지난 7일 중간수색 결과 브리핑에서 "잠정 확인된 인원은 탑승자 476명, 생존자 172명, 사망자 269명, 실종자 35명"이며 "탑승자 수는 변동이 없지만, 구조자가 2명 감소하고 실종자가 2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러 해경은 실종자의 경우 명단에 없던 중국인 2명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발견했으며 구조자는 동일인의 중복기재 1명, 오인신고 1명이 발견돼 2명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언급한 중국인은 이도 남. 한금희씨로 지난달 21일과 23일 발견됐다.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 해경은 이미 신원확인이 이뤄지고 장례까지 치른 이들을 아직 세월호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해경이 이날 발표한 승선자와 생존자, 사망자 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주 동안 무려 일곱 번째 반복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보는 국민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1만여명이 속해 있는 거대 조직 '해경'을 해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는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능력은 둘째로 치더라도 초보적 허수(虛數)조차 가려내지 못한 채 불신만 조장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재(人災)이든, 천재(天災)이든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조치는 마땅히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불신은 쌓기 쉬우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매우 어려운 법이다. 앞으로는 미흡한 사후조치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불신과 실망을 안기는 '오락가락 정부'가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사회경제부 사회팀 차장 tearand76@

객석

팬목향의 기억



박현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 소장

지나자 배 안에서 살아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가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외침도 달라졌다.

"시제라도 얼른 찾아주세요. 내 새끼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고 보내주세요..."

사고 발생 후 20일이 지나자 세탁구호 차량으로 가져오는 세탁량이 부족 늘었다. 대부분 아이를 찾고 떠난 희생자 가족들이 덮었던 이불빨래가 많았다.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했던 팬목향은 아직까지 바다에서 나오지 못한 피해자 30여명의 가족들, 그리고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팬목향에 남아 피해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 몇몇 취재진만이 남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25일째 되던 날 구호팀원과 교대를 하고, 팬목향을 떠났다. 이곳을 떠나기 직전 이날 찾은 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났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아이 아버지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얼굴도 못 보고 보내줘야 하는 줄 알았다. 얼굴이라도 보고 보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어른으로서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했고, 힘들어하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고도 미안했다.

기자의 눈

선거판 빼닮은 KB사태



박선현 금융시장부/sunhyun@

KB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놓고 경영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KB금융 사태'가 정치판을 속 빼 닮았다.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배임"이라는 자기 논리에 빚대어 양측은 폭로전과 배후설을 일삼고 있다. 호시가지들은 경쟁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임 회장과 A시스템통합 업체(SI) 모 임원이 친척 관계라는 말을 흘리며 리베이트를 의심하고 있고, 또 다른 소문꾼들은 이 행장이 칼을 빼든 것은 그의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 현 정권에 맞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흘린다.

정병기 감사로부터 검사를 요청 받은 금감원도 검사 인력을 대폭 늘리며 '이번엔 철저히 내부통제 진상을 조사하겠다'

며 잔뜩 버르고 있다.

여야가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번 선거판과 흡사하다.

신원(伸冤)에 빠져 득실을 따지는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미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 이미지는 부장비리로 전락했다. 심지어 경쟁입찰 일찌감치 지연되면서 IBM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체 사용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빌려 나온 확인되지도 않은 말들은 호사들과 소문꾼들 '안춧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뒤 국민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주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할 예정이다. 두번째 '화해' 시도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 강행과 사회적 효력 정치 가치분신정 카드가 언급되면서 이번에도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사태 당사자들은 선대 경영진들이 일궈 놓은 '리딩뱅크' 기반을 흔들고 있는 주인공이 정자 자신들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0일, 수뇌부들의 문과즉회(聞過則喜) 자세를 기대한다.

이투데이

社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온라인뉴스부, 시정부, 미래산업부, 국제경제부, 금융부, 사회생활부, 사진팀.

www.etoday.co.kr,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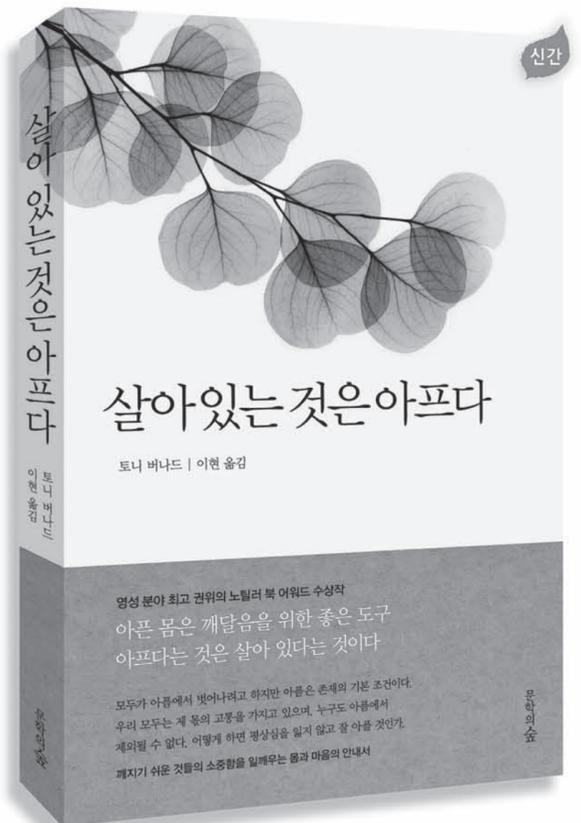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차방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FILCO (주)필코인터내셔널 동부화재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1억원 가입



옷, 알러지, 피부트러블, 두피염증, 모발손상, 눈따가움

염색부작용!

리시리 트리트먼트가 해결해 드립니다.



리시리 트리트먼트 사용자 이야기

역한 냄새에 머리가 지끈지끈, 두피가 따갑지 않아서 좋아요!



집에서 혼자 염색준비를 하는게 귀찮고 염색하고 나면 머릿결이 푸석해져서 염색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리시리 트리트먼트는 무첨가라서 역한 냄새도 없거나니와 캡을 쓰고 5~10분 정도 방치하면 염색이 되기 때문에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마 언저리에 새치가 잘 보이는데 부분적으로 사용하니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이나바 (50대)

저에겐 예쁘게 젊음을 지속시켜 주는 아이템이죠!!



새치가 생기면 실제 나이보다 5~6살 정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게 충격적이었어요. 혼자서 염색약을 사서 해보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염색 해보기도 했지만 피부에 맞지 않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리시리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보았는데 간편하게 염색이 잘되어 놀랐습니다. 그 뿐 아니라 머릿결이 차분하고 찰랑찰랑하니 수시로 머리에 손이가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이 제품은 나에게 예쁘게 젊음을 지속하게 해주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마쯔오 (40대)

리시리 트리트먼트는 염색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리시리 2+1 무료체험 기회!

리시리 트리트먼트 (10gX2개)
리시리 샴푸 (10gX1개)
*배송료 2,500원은 고객 부담.



無첨가

암모니아 | PPD | 산화제 파라벤



리시리 트리트먼트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염색 부작용 때문에 염색을 못하시는 분.
- ✓ 염색 시 눈 따갑고 두통이 심하신 분.
- ✓ 모발과 두피 손상이 심하신 분.
- ✓ 화학성분에 민감하신 분.
- ✓ 피부알러지가 있으신 분.
- ✓ 염색 후 부드러운 머릿결을 원하시는 분.

흰머리 커버용

리시리 트리트먼트

옷, 알러지, 모발손상 걱정없이 흰머리를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

간편한 사용방법



리시리를 손에 덜어 머리에 바르고 맑은 물이 나올때까지 헹구면 끝!
* 염색을 위한 준비절차가 필요없고 번거롭지 않아 집에서 혼자서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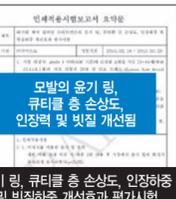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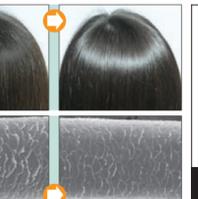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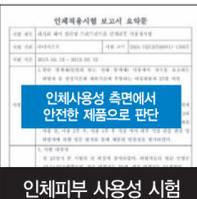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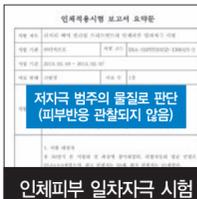
리시리 트리트먼트 주요성분

리시리 트리트먼트는 건과물, 울금, 치자, 자근, 인삼, 캐모마일, 서양송악 크레송, 국화, 로즈마리 추출물 등 28종의 식물성분으로 트러블 없이 자연스럽게 머리색을 변화시키고 리시리 성분 천연 다시마의 알긴산은 모발과 두피에 촉촉함을 주고 후코이단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국내최초!!

임상실험 및 개선효과 평가 시험 완료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부분 새치커버용

리시리 감추미

고객의 요청으로 탄생한 리시리 핫이슈 아이템

묻어나지 않습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리시리 감추미는 외출시 순간적인 새치커버뿐 아니라 칫수를 더할수록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착색됩니다!!



리시리 샴푸 & 컨디셔너



색깔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사용할수록 착색이 쉽게되고 색을 오래 지속시켜 이상적인 머릿결로~



리시리를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리시리 샴푸를 무료로 드립니다!

상담 및 주문 무료전화

080-582-0119

취급점 모집

자연파 自然派 club 헤어마인드 www.hairmind.co.kr

*자연파(自然派) 클럽 헤어마인드를 방문하시면 필코의 다양한 천연성분 헤어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빠른배송
안심배송

“잠시 주춤했을 뿐 넥슨 위기 아니다”

‘개발자 컨퍼런스’ 등장한 김정주 NXC 회장



사진제공 넥슨

히트작 부재? 시간 지나면 주목 받을 것이라 믿어 경영복귀 사실무근... 좋은 게임 개발로 다시 도약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넥슨이 정말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인기를 못 누리려는 게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져 진짜 효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

게임업계 ‘은둔의 리더’라 불리는 김정주 NXC 회장이 27일 경기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14)’에 깜짝 등장했다. 넥슨 실적이 악화되면서 김 회장의 경영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해 7월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 회장은 NDC14 기조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넥슨의 위기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 일선 복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넥슨의 게임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목을 받을 것이며 진짜 효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히트작 부재 등 넥슨의 여러 문제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 “넥슨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회사 경영을 잘할 수 있는 타이머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 전문가와 함께 일했다”며 “경영에 복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영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김 회장은 ‘게임회사 CEO의 역할’이라는 색션에 참석해, 넥스코리아 박지원 대표, 넥슨재팬 오웬 마호니 대표와 과거 넥슨을 돌아보고, 넥슨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회장은 과거 10년간 넥슨이 대표 타이틀이 없지만 인수합병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룬 상황을 꼬집으며, 앞으로의 10년 넥슨의 방향에 대한 빠이는 질문

을 던졌다. 김 회장은 “넥슨은 10년간 자체 개발 타이틀이 단 하나도 없이 실적은 상승세를 그려왔다. 앞으로 10년간 넥슨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했고, 두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대답으로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게임산업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게임의 핵심 경쟁력을 창의와 재미로 꼽은 김 회장은 “넥슨도 황금기가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다시 한번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좋은 게임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원조 섹시 디바’ 김추자 컴백 “더 늦기 전에 무대 서고 싶어”

내달 2일 새 앨범 ‘이즈 낫 투 레이트’ 발표

원조 섹시디바 김추자(63·사진)가 33년 만에 컴백했다.

김추자는 27일 새 앨범 ‘이즈 낫 투 레이트(It's Not Too Late)’ 발매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가요계로 복귀한 이유와 새 앨범 콘셉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을 기다리느라 많이 노력했다. 더 늦기 전에 나오게 됐다. 긴 세월 동안 잊지 않고 찾아준 팬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며 “30년 이상 평범한 아내로, 엄마로 살다가 다시 무대에 선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설레고 흥분도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1970년대를 풍미한 김추자는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사단의 간판스타로 ‘커피 한 잔’, ‘거짓말이야’,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넌 먼 곳에’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1981년 결혼한 뒤 가수활동을 중단했다.

김추자는 “젊은 시절 나는 춘천에서 올라와 갑자기 히트를 쳤다.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더 이상 하기 싫었다”며 “결혼생활은 행복했다. 다시 마음먹은 것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소화할 수 있겠더라. 목소리 망가지기 전에 나오고 싶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33년 만에 내놓은 이번 앨범에는 신중현의 ‘몰라주고 말았어’, ‘내 곁에 있듯이’, ‘고독한 마음’, ‘태양의 빛’, ‘가버린 사람아’ 등의 5곡을 포함해 고(故) 이봉조가 작곡한 ‘하늘을 바라보소’, ‘그리고’, 트로트 작곡가 김희갑의 ‘그대는 나를’ 등 총 9곡이 수록돼 있다. 김추자는 오는 6월 2일 새 앨범을 발표한 후 6월 28-29일 서울 코엑스 홀(Hall) D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mj_kim@

‘별처럼 빛난 그대’ 송강호·전지현

제50회 백상예술대상 TV·영화부문 대상 받아

배우 전지현과 송강호가 제50회 백상예술대상 TV, 영화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5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난해부터 TV, 스크린을 빛낸 스타, 작품, 연출진에 대한 수상이 진행됐다.

영예의 대상은 전지현과 송강호의 몫이었다. 전지현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대상을 받았다. 그녀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멈춰 있던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눈물의 수상 소감을 전했다. 송강호는 수상 소감에서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피끓던 겨울을 보냈다”며 영화 관계자,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 소중한 생명을 희생당한 많은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빈다.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송강호의 대상 수상 외에도 양우석 감독의 신인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전지현의 ‘별에서 온 그대’ 역시 김수현의 남자 인기상, ‘my destiny’ 린의 드라마



송강호와 전지현. 사진제공 JTBC

OST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소원의 설정’이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받았고, ‘수상한 그녀’의

심은경은 여자 최우수연기상의 주인공이 됐다. TV 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은 KBS ITV ‘정도전’의 조재현에게 돌아갔고, 여자 최우수연기상은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흥행권으로 거듭난 이보영이 수상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인상 부문에서는 김수현과 정우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김수현은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영화 부문 남자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정우는 tvN ‘응답하라 1994’로 TV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우아한 거짓말’의 김향기와 MBC ‘기황후’의 백진희가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최두선 기자 sun@

‘자선 남매’ 버핏... 누나 도리스도 소외계층 지원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美 국립과학원 외국인 회원에

선샤인레이디재단 설립 후 1억5000만 달러 사재 기부

위런 버핏 버크셔셔서웨이 회장은 물론 그의 누나인 도리스 버핏(86)도 기부에 앞장서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AP통신이 소개했다.

2006년 ‘투자의 귀재’ 버핏(83)이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자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적 편지가 쇄도했다. 자신의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 경영에 집중해야 하는 버핏은 도움 요청 편지와 관련된 일을 누나 도리스 버핏에게 맡겼다. 도리스가 운영하는 ‘선샤인레이디재단’

은 여성 7명의 도움을 받아 편지 사연 중 잘못이 없는데 불운을 당한 사례가 있는 지 꼼꼼히 살핀 후 편지에 응답했다.

도리스 버핏은 4번의 이혼과 1987년 미국증시 폭락사태 때 1200만달러(약 122억 8200만원)의 손해를 보는 불운을 경험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유산을 상속받은 후 1996년 ‘선샤인레이디재단’을 설립했으며 1억5000만 달러의 사재를 재단에 기부해 가정폭력 희



2009년 6월 25일 도리스 버핏(오른쪽)이 자신이 운영하는 ‘선샤인 레이디 재단’ 행사 후 위런 버핏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연합뉴스

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수감자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를 돕는 일 등을 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1억 후원

김빛내리(45·사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이 미국 국립과학원(NAS) 외국인 회원이 됐다. 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 김 단장이 지난달 열린 미국 국립과학원 총회에서 외국인 회원에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단장은 유전자 조절 물질인 마이크로 RNA의 생성과정과 생물학적 기능을 규명할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국 국립과학원은 1863년 미 연방법에 따라 과학 발전과 인류 복지에 기여한 과학자와 공학자의 모임으로 설립됐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2011년부터 매년 1억씩 전달해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은 지난 27일 육군본부 방문해 김유근 육군참모차장에게 ‘2014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2011년부터 육군과 복지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무주택 참전 유공자의 내집마련 사업인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에 매년 1억원을 후원해 오고 있다.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이 회

장은 육군본부에서 무주택 참전 유공자를 위한 내집마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송고한 뜻에 동참하기 위해 이 사업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이 회장은 “민과 군이 참전 유공자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다”며 “여전히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참전 유공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육군을 비롯해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들의 관심과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왼쪽 두 번째)이 27일 육군본부를 찾아 김유근 육군참모차장(왼쪽 세 번째)에게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계룡건설

인사

◆교육부 ○일반기 고위공무원 승진 △공공주대 사무국장 배재웅 △복포대 사무국장 설세훈 △순천대 사무국장 김문택 △전남대 사무국장 선태무 ○전보 △운영지원 과장 주명현

◆외교부 ○실장급 △대변인 노광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신봉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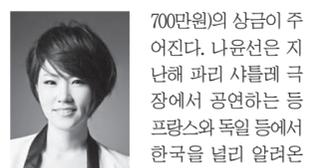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권 통일문 △제연구소장 이계성 △디지털전략본부장 황상진 △편집국장 고재학

‘한불문화상’에 재즈 가수 나윤선

재즈 가수 나윤선(사진)이 ‘2013년 한불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99년 창설된 한불문화상은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나윤선 이외 파리한국영문화재,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벤자민 주아노 등도 상을 받는다.

이해민 주프랑스 한국대사가 위원장인 한불문화상 선정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파리 소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시상식을 연다. 수상자에게 각각 5000유로(약



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나윤선은 지난해 파리 사틀레르장에서 공연하는 등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한국을 널리 알려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녀는 시상식 후 미니 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그동안 지휘자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백건우 등이 한불문화상을 받았다.

배준호 기자 baehj94@

부음

▲이강열(국제청소년교육재단 이사장·전 전남도부 교육감)씨 상배, 승재(SC제일은행 이사)씨 모친상 = 27일, 발인 30일 오전 9시, 광주 구린장례식장, 062-250-4455

▲장정원(JTBC 촬영기자)씨 장모상, 이승은(한빛초등학교 교무행정사)씨 모친상 = 27일 오후 1시, 전남 목포 서해안 장례식장 101호, 발인 29일 오전 8시, 010-9441-0345, 010-2662-2074

▲정요일(전 한국한문화회화장·서강대 명예교수)씨 별세 = 26일 오후 11시 7분, 서울 대명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29일 오

전 8시 30분, 02-2072-2014

▲김민정(스포츠토토 동아 엔터테인먼트부 기자)씨 조모상 = 27일 오전 4시 30분, 경남 김해전문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55-331-4444

▲이홍범(인천시 예산담당관)씨 부친상 = 27일 오전 7시 50분,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32-580-6680, 010-6327-3054

▲이상숙(전 스포츠서울 사회과학자(회장)·상민(전 엔텔스 연구소장)·수진(명진기회 관리실장)씨 모친상 = 27일 오전 0시, 서울 은평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7시, 02-351-4444

예상 갯 프로야구 초반 성적표



갈기 세운 사자

11연승 독주... 넥센전 23안타 '불방망이쇼'



바짝 뒤쫓는 곰

'3할 타자' 6명... 최근 10경기 8할대 승률



기세 꺾인 영웅

5연패 수렁... 조상우 부상으로 마운드 비상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4강 1중 4약으로 좁혀졌던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프로야구의 초반 판도가 삼성 라이온즈(1위)의 11연승으로 1강 3중 5약이라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26일 기준 프로야구 9구단은 41~45경기를 소화했다. 전체 128경기의 30%가량을 녹여낸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판도 변화는 안개 국면이다. 올 시즌 약체로 분류됐던 삼성이 11연승으로 선두로 도약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두산 베어스(2위)와 NC 다이노스(3위), 넥센 히어로즈(4위)가 중위권을 형성하며 삼성의 선두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나 롯데 자이언츠(5위)와 SK 와이번스(6위), KIA 타이거즈(7위), 한화 이글스(8위), LG 트윈스(9위)는 5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삼성 25일 넥센전까지 11연승을 달리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지난 4월 한달을 6위(11승 10패·승률 0.524)로 마친 삼성은 어느새 단독 1위로 올라서며 통합 4연패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특히 25일 넥센전에서는 23안타를 쏟아부으며 18·2 승리를 만들었다. 최근 3연승 스윙(3연전 전승)을 포함, 11연승을 질주 중인 삼성은 투타의 완벽한 조화로 효율적인 게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팀 득점에서는 266점(경기당 6.33점)으로 9구단 중 최고다. 팀 타율(0.287)과 출루율(0.363), 장타율(0.487)은 결코 높지 않지만 무서운 집중력으로 알토란 같은 성적을 이끌어내고 있다.

중위권을 형성한 두산과 NC, 넥센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위 두산은 3위 NC에 반 경기 차로 앞서 있고, 3위 NC와 4위 넥센은 한 경기만 차다.

두산은 팀 타율 0.300이 넘는 유일한 팀이다. 0.300대 타

자를 6명(오재원·민병현·홍성흔·김현수·양의자·간투)이나 보유할 만큼 물오른 타격감을 발휘하고 있다. 평균자책점도 3위(4.95)로 비교적 안정했다. 무엇보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8할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선두 삼성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 있어 선두 탈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넥센은 하향세가 두드러졌다. 올 시즌까지 3년 연속 20승을 선점했던 넥센은 투타 모두 부진하며 최근 5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은 8.47, 팀 타율은 0.238다. 올 시즌 넥센의 평균자책점은 5.45로 8위에 머물러 있다.

넥센의 부진 원인은 부실한 마운드에서 찾을 수 있다. '밑을맨(밑을직한 미들맨)'으로 활약했던 조상우가 부상으로 이탈, 타력에 의존해 왔지만 타선의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10경기 3승 7패다.

하위권 5개 팀은 아직까지 변수가 많다. 4위권 싸움을 벌여왔던 롯데가 주춤(최근 4승 6패)한 사이 6위 SK에 한 경기 차로 쫓겼다. 7위 KIA와도 1.5게임 차에 불과하다.

반면 한화와 LG의 약진은 돋보인다. 한화는 최근 10경기 5승 1무 4패, LG는 5승 5패다. 특히 LG는 양상문 감독 부임 이후 2연승 위닝시리즈(3연전 중 2승)를 기록하는 등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하일성 KBS N 스포츠 야구해설위원은 "삼성이 최강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절묘한 시점에 임창용이 들어와 오승환의 공백을 메웠다. 그로 인해 2·3이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안치민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삼성은 다시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이 됐다"고 전망했다. 오성민 기자 golf5@

오심... 오심... 오심... 불신의 프로야구

한화-넥센전 3경기 연속 논란

'비디오 판독·4심 합' 확대 추진
일각 "심판 권위 존중해야" 의견도

심판 오심 논란이 극에 달했다. 감독이 심판 판정에 항의해 선수단을 그라운드에서 철수시켜 퇴장당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는가 하면 오심 논란으로 관객이 운동장에 난입, 심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렇고 심판이 경기 도중 교체되는 흔치 않은 경우마저 발생했다.

한화 이글스 김응용 감독(73)은 21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2·4로 뒤진 6회말 넥센 윤석민의 타구가 페어로 판정되자 강하게 항의하며 선수단을 철수시키는 강수를 썼다. 그리고 그는 23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경기의 4회말 넥센 박현도의 희생 플레이 때 한화 포수 정병모가 송구를 받았지만 세이프가 선언됐다. 이에 KBO는 21일 이영재 심판에게 오심 판정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프로야구에서 심판 판정이 구설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판정 논란은 올 시즌 초 다시 이슈가 됐다. 끊이지 않는 오심 논란에 KBO는 비디오 판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심 여부를



21일 오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6회말 2사 2루 상황에 넥센 윤석민의 3루 베이스를 밟고 지나간 타구가 안타로 인정되자 한화 김응용 감독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단 철수를 감행했다. 문승훈 심판이 김응용 감독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시스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정한 야구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을 확대하기 위해선 먼저 야구 규칙부터 개정해야 한다. 야구 규칙 9.02에는 '투구가 스트라크이나 불이나, 타구가 페어로 파울이나, 주자가 아웃이나 세이프나 심판 판정은 최종의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KBO가 자체 방송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위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거나 방송사의 중계방송 카메라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KBO는 비디오 판독 확대와 더불어 4심 합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심 합의는 특정 심판이 경기 도중 규칙 적용을 잘못할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

지만 명백한 오심이라고 다른 심판들이 판단할 경우 4심 합의로 재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심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광권 해설위원은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에 비해 우리나라 오심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심판들이 굉장히 정확하다. 야구는 전염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수한 사람이 또 실수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압박되고 좁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아마 이런 과정이 지나면 좀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심판들도 외국처럼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 등 개개인 나름대로 노력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홍성별 기자 byu10104@

우즈 빠진 PGA '왕좌의 게임'

스콧, 2주 연속 랭킹 1위... 스텐슨, 우즈 제치고 2위에

우즈 허리부상 생각보다 심각 US오픈 출전도 불투명



애덤 스콧 헨릭 스텐슨

타이거 우즈(39·미국)가 빠진 미국프로골프(PGA)투어는 대혼전이다. 지난 3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타이거 우즈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 결장에 이어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마저 불참했다. 6월 열리는 US오픈 출전도 불투명하다.

우즈가 PGA투어를 비워 둔 사이 2인자의 도전은 거세졌다. 세계랭킹 1위 애덤 스콧(34·호주)과 지난해 유러피언투어 삼광왕 헨릭 스텐슨(38·스웨덴), '차세대 골프황제' 로리 맥길로이(24·북아일랜드), 올 시즌 마스터스 챔피언 버바 왓슨(36·미국), 시즌 초반 3승으로 돌풍을 일으킨 지미 웨이크(35·미국) 등

이 황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애덤 스콧은 26일(이하 한국시간) 끝난 크라노플라자 인비테이셔널 우승으로 2주 연속 세계랭킹 1위(랭킹 8.94점)를 지켰다.

스콧은 올 시즌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과 ISPS 한타 월드컵에서 각각 3위에 올랐고, 현대 토너먼트와 소니오픈에서는 각각 6위와 8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상위권을 유지했다. 삼광왕은 13위(224만8650달러·23억원)다.

26일 끝난 유러피언투어 BMW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를 차지한 헨릭 스텐슨은 지난주 3위에서 우즈를 밀어내고 2위(7.79점)로 올라섰다. 우즈는 2위에서 3위

(7.75점)로 밀려났다.

BMW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로리 맥길로이는 지난주 10위에서 4계단 오른 6위(6.92점)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맥길로이는 올 시즌 PGA투어에서는 8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없이 178만7840달러(18억2900만원)를 벌여 삼광왕 24위에 올라 있다.

유용열 SBS골프 해설위원은 "타이거 우즈의 결장이 장기화되면서 PGA투어 판도는 혼전 양상이다. 그러나 우즈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다시 골프채를 들고 필드로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 만큼 혼전 양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오성민 기자 golf5@

www.izumikorea.co.kr

男子

당당한 파워 섬세한 감각 세계적 명성

자존심을 세우다!

전기면도기의 새로운 중심, 이즈미 FR-300

방수기능 무빙헤드 팝업 트리머 충전표시

55년 일본 장인정신이 만든 이즈미 전기면도기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고의 제품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000세트 한정판매!

전기면도기 스탠더드 FR-300 ₩99,000

제품특징 • 초정밀 예칭 가공 3중 면도날(made in Japan) 사용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교류구동으로 저진동 실현 • 천연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림질 • 전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자동 전압 조정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멧새를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피우치

제품사양 • 왕복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 40분 사용(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5g • 구성품: 본체/피우치/브러시/ACアダプ터/사용설명서/배터리(N-MH-전지포장타입) 2개

전기면도기 프리미엄 FR-500 ₩129,000

제품특징 • 전원 스위치의 오작동 방지 Lock(락) 부착 • 독립 플로팅 3중날 시스템(센터 트리머 포함)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교류구동으로 저진동 실현 • 천연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림질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5단계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멧새를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피우치

제품사양 • 왕복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 40분 사용(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6g • 구성품: 본체/피우치/브러시/ACアダプ터/사용설명서/배터리(N-MH-전지포장타입) 2개

다기능 코털 면도기 NB-12 (전기면도기 함께 구매시) ₩17,000

제품특징 • 생략 방수 기능으로 물 세척 가능 • 길기 편한 물결형 가공 • 폼팩트 사이즈로 출장 등 외출시 최적 • 면도날 앞쪽으로 면도날 보호 • 정소하기 편리한 솔 장착 • 약 6500rpm의 강력한 회전력 및 부드럽고 조용한 작동 • 정교한 커빙을 구현하는 일체 cutter •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는 2중 안전설계의 밀구조

제품사양 • 간접식 사용식 • 15V AA 사이즈 • 130.5x28x31.8mm • 중량 52g • 작동시간 약 1개월(1일 1회 3분 사용)

- 전기면도기 스탠더드(FR-300) : ₩3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 전기면도기 프리미엄(FR-500) : ₩4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24시간 무료 주문전화 080-769-9000
 온라인주문 www.myseason.co.kr A/S센터 : 031-791-3983
 (주)오래들 | 대표: 최병철 | 서울 중구 정동동2가 173-1 | info@myseason.co.kr | 서울 중구-1139호

감시자? 로비스트?

⋮

누구나 넌!



Cover Story

■ 논란의 중심 '금융권 감사'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로 인한
KB국민은행의 경영진 갈등이
금융권 최대 화제로 떠올랐다.
내부 갈등의 직접적 배경에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결정 과정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의혹에 대한
은행 내부 감사보고서가 중심에 있다.
이 감사보고서에는
2000억원 규모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의
판단 근거가 된 자료가 왜곡·조작됐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로 인한 KB국민은행의 경영진 갈등이 금융권 최대 화제로 떠올랐다. 내부 갈등의 직접적 배경에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결정 과정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의혹에 대한 은행 내부 감사보고서가 중심에 있다. 이 감사보고서에는 2000억원 규모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의 판단 근거가 된 자료가 왜곡·조작됐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표면적으로 분석하면 그동안 허수아비 논란에 휩싸였던 금융권 감사시스템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경영진과 이사회 등의 경영 판단에 거수기 역할을 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사태의 결론이 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예고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금융권에는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이를 사후 평가할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국민은행 사례에서 보듯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일부 인사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은행 경영협의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 자의적인 감사권을 남용,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금융권 감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KB금융 경영진 갈등 여파 감사시스템 재정비 한목소리 '금피아' '모피아'가 장악 견제·감시 미흡... '거수기' 오명 '중징계 맨 연임금지' 제재 강화 나섰지만 효과 미지수

일찍이 은행권의 상임감사 자리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용우 우리은행 상근감사는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감사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조선희 하나은행 상근감사는 금융감독원 은행감사2국 부국장 겸 증권감사2국 국장을 역임했다.

이석근 신한은행 상임감사는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또 한백현 농협은행 감사위원은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 국장을 지냈으며, 이용찬 상근감사는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 국장을 지냈다. 신연성 외환은행 상임감사는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과 감사원 심의실, 감사원 감사청구조사 국장을 거쳤다. 윤영일 기업은행 상임감사도 감사원 출신으로 낙하산 출신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이사회와 갈등을 빚은 국민은행 정병기 상임감사의 경우도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험권의 경우 금감원 출신인 이성조 한화손해보험 감사와 장명식 현대라이프생명 감사가 재선임됐다. NH농협생명

의 경우 임기만료된 이상덕 감사(전 금융감독원 팀장)의 후임으로 강길만 전 금감원 국장을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강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기재부 출신인 한화생명 정택환 감사도 재선임에 성공했다.

카드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KB국민·롯데카드·NH농협은행(농협카드)의 감사 자리는 금감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국민카드 서문용체 상근 감사, 롯데카드 조옥현 감사, 이용찬 농협은행 감사, 신한카드 김성화 감사 등이 금감원 출신이며, 양성용 금감원 전 부원장보도 최근 삼성카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여기에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외이사들이 자본시장법상 감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데다가 감사위원회에 상임 감사가 참여, 상호 견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비판은 지속됐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하달한 감사업무 지침은 사

실상 사문화가 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감사부에 1급 정보를 차단하고 있을 정도다. 이미 감사가 경영진의 들러리 노릇에 머물거나 대외 로비 창구로 활용돼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은행권 사정에 밝은 인사는 "현재 은행권 감사에는 감사원·금감원·재무부 출신자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내부통제를 단속한 사례는 없었다"며 "뒷방에서 고액 연봉에 자족하던 게 그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서 '분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감사는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등 감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감사 자리가 퇴직 모피아 간부들의 노후대책으로, 현직 간부들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권 감사들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고, 감사들 역시 내부통제라는 원래의 역할보다는 대관업무에 치중할 게 사실이다.

최근 '관피아' 논란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다.

안철우 기자 acw@

6개 시중은행 '관피아'로 채워... 절반은 올해 선임

은행 감사 살펴보니

은행권 감사들의 '관피아' 논란은 하루 이틀 일 아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상임감사 자리를 전리품처럼 나눠 갖고 있다. 기관장에 이어 '2인자'로 통할 만큼 그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후 청와대 비서관 출신 4명이 공공기관 감사로 선임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 폐단을 지적했지만 은행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실제 KB국민, 우리, 신한 등 6개 주요 은행 상근감사는 여전히 '관피아'로 채워져 있다. 이 중 절반은 올해 선임된 인물들이다.

우선 관피아의 원조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모피아 출신이 배제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감사위원 중에는 재정경제부 출신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임영록 회장과 이진호 행장의 '알려다름'으로까지 비화된 KB금융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정병기 상임감사는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장,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으로 일했다. 정 감사는 전국은행연합회 감사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올 초 국민은행 내부에서 잇달아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져나오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 행장이 결재하는 모든 건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은행 측에서는 일상 감사를 집행하기 전 위법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경영권과 감사권

KB사태 핵심 정병기 감사

재정부 과장·기재부 감사담당

우리·외환·기업銀 상임감사에

금피아 빈자리 '감피아' 진출

국민, 대통령 비서관 출신 영입

하나·외환, 감사경력 '범피아'도

의 총돌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정 감사와 함께 한기정 외환은행 감사위원도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모피아와 함께 은행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세력이 금피아(금융위·금감원+마피아)다. 은행에게 '갑인' 금융당국과 가장 밀접한 연을 맺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오갑수 국민은행 감사위원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다.

이석근 신한은행 상임감사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총괄국 팀장, 국제업무국 국장, 총무국 국장을 역임했으며 김광식 하나은행 상임감사 역시 금융감독원 감사실 팀장, 공보실 국장을 지내며 당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넵버3'는 감피아(감사원+마피아)다. 이들은 금감원이 지난 2011년 금융사 감사에 퇴직자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뒤 빠르게 요직을 꿰차고 있다.

'모피아, 금피아가 떠나니 감피아가 득세한다'란 얘기까지 돌 정도다. 이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 감독원을 전 금감원을 검사하는 곳인 감사원이란 점을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은행 김용우, 외환은행 신연성(대행), 기업은행 윤영일 등 3명의 상임감사 모두 감사원 출신이다.

범피아(범조+마피아)도 만만치 않다. 이기배 하나은행 감사위원장은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과 수원지법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로웰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건표 외환은행 감사위원 역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로 있다.

은행권 감사 가운데 정피아(정치+마피아)의 대표적 인물은 강희복 국민은행 감사위원이다. 그는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4년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 부단장 겸 경제제도 비서관을 역임, 김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조폐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은행별 감사 현황

구분	위원장	상임감사
KB국민	이름 오갑수 출생 1948.11 학력 대전고-서울대 경영대학-외투스쿨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미국 드렉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SC제일은행 및 SC금융지주 비상임이사 (현)글로벌금융학회 회장	정병기 1955.11 합성고-영남대 행정학과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장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채직기간 2011.9.29~ 임기만료 2014.09.26	2014.01.03 2017.1.2
신한	이름 박세진 출생 1960.04 학력 대구 계성고-서울대 무역학과- 플로리다대학교 대학원	이석근 1958.07 보성고-연세대 경영학과-콜로라도대학교 경영학 석사-동국대 경영학 박사 금융감독원 감사총괄국 팀장, 금융감독원 국 제업무국 국장, 금융감독원 총무국 국장, 금융 감독원 전략기획본부장, 탈로이트컨설팅 상임고문
	채직기간 2011.03.22~ 임기만료 2015.03.27	2014.01.01~ 2015.12.31
우리	이름 최광식 출생 1960.08 학력 청주고-연세대 경제학-에일대 경제학박사 주요경력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현)연세대 상경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우 1956.11 전주고-연세대 경제학-시리스크 행정학 석사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장감사원, 사회복지감사 국장감사원, 감사연구원감사원 제2사무차장
	채직기간 2014.03.20~ 임기만료 2015년 정기주총일	2011.03.24~ 2014.12.30
하나	이름 이기배 출생 1954.06 학력 경기고-서울대 법학 주요경력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 수원지법검찰청 검사장 (현)법무법인 로웰드 대표변호사	김광식 1958.19 마포고-성균관대 경영학-연세대 경영학 석사 금융감독원 감사실 팀장, 금융감독원 공보실 국장 금융보안연구원 원장
	채직기간 2011.03.24~ 임기만료 2015.03	2014.03.20~ 2017.03
외환	이름 권영준 출생 1952.05 학력 경기고-서울대 경제학 학사-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무학과 교수 제9대 한국선물학회 회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연성(대행) 1959.03 제물포고-서울대 경제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경영학 박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 감사원 금융 감사국 국장, 감사원 감사청구조조국 국장 감사원 심의실 실장감사원, 행정안전부감사국 총괄과 과장
	채직기간 2012.03.13~ 임기만료 FY2014정기주주총회일	2014.03.23~ 2015.03.22
기업	이름 윤영일 출생 1957.11 학력 마포고-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주요경력 행시 23회UN 감사실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감사원, 감사교육원장	윤영일 1957.11 마포고-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행시 23회UN 감사실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감사원, 감사교육원장
	채직기간 2011.07.25~ 임기만료 2014.07.24	2011.07.25~ 2014.07.24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신용의 상징-비둘기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전화: 1248-0100

피로가 몰려온다면...
베콤씨로
영양부터 챙기자!

100정
온가족 활력 영양제
베콤씨
Vitamin B · C + 황산화성분
비타민 B12 함유
당장 활력 충전

내일을 바꾸는 온가족 영양제
베콤씨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쉽게 피로해져서 걱정인가요? 몸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지치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두 알씩, 몸에 필요한 비타민 B와 C에 황산화 성분까지 채운 베콤씨로 영양균형을 잡고 피로도 잡으세요.

행장급 의전에 권한도 막강 인사개입·청탁 부작용 속출

“2인자, 역대연봉, 행장급 의전”
은행권의 감사 앞에 붙는 수석어들이다. 최고경영자(CEO)만큼 업무 부담은 많지 않은 대신 하는 일에 비해 고액 연봉을 받아 관료들이 퇴임 후 ‘노후 보장’으로 선호하는 자리다. 국내 시중은행의 감사위원(사외이사)들이 작년 한해 동안 받은 보수는 평균 1억원에 달했다.

그만큼 감사 자리에 대한 인기도 높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상임감사 자리는 감사원·금감원·기획재정부 출신 퇴직 인사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들은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어 좋고

대우 좋고 업무 부담 적어 인기
감사원·금감원·기재부 출신 독식
금융사, 로비·방패막이용 모시기

금융회사들은 관료 출신을 영입해 로비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고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어 정부기관 출신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바로 은행 상근감사”라며 “상근감사 임기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선임될 경우 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현직 고위 관료들을 영입하는 금융회사들은 “출신 배경이 아닌 전문성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관리·감독기구 출신이 금융사 감사위원에 앉

아 있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최근 KB금융 사태에서 나타났듯 감사는 은행장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행장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일정 부분 경영에 간섭이 가능하다. 각 은행들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들의 권한은 포괄적이며 막강하다.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은행과 사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불러 관련자료와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기관 출신인 감사에 의한 인사 개입과 내부 청탁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국민은행 노조는 기재부 출신인 정병기 상임감사가 부정직 인사발령을 두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시도했다며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은행장과 상근감사위원의 면담 직후 부정직 인사발령이 갑자기 연기되는 등 압력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이 감사원, 금융감독원 출신들을 감사·사외이사로 영입해 놓고 로비스트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독기관의 직원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신태현 기자 holjak@

11곳 중 10곳 정부부처·금융당국 출신 감사 재직

보험권 '낙하산 인사' 활개

일반기업 출신이 상근감사 맡은 곳 롯데손보가 유일 금감원 보험검사국·감독국 경력, 보험회사 이직 코스 임기만료 땐 재선임... 감독 공정성·투명성 훼손 우려

보험권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무풍(無風)지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1개 상장 보험사 중 정부부처 및 금융당국 출신 상근감사위원이 재직 중인 곳은 10곳에 달한다. 동양생명의 김상규 감사는 임기가 만료됐지만, 이사회 임원이 아닌 내부 감사 임원으로 재선임됐다. 공직자윤리법 강화 이후 금융감독원 등 관료 출신 감사 선임이 어려워지면서 아예 상근감사 체제를 감사위원회 체제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 상장사 10곳 중 7곳의 상근감사위원은 '금피야'로 불리는 금감원 출신이다. 특히 금감원 재직 당시 보험사를 직접 검사하고 감독했던 보험검사국, 보험감독국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당 부서 출신은 조병진(보험검사국) 삼성화재 감사, 박병명(보험감독국) LIG손보 감사, 노승방(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장) 메리츠화재 상근감사위원, 김상규(보험검사국) 부국장) 동양생

명 감사 등 4명이다. 조병진 삼성화재 감사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서비스국장을 역임하며, 보험연수원장을 지냈다. 박병명 LIG손보 감사는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교수, 전북은행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노승방 메리츠화재 감사는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안형준 동부화재 상근감사위원은 금감원에 흡수된 보험감독원 출신이다. 나병현 현대해상 감사는 금융감독원 공보실 국장,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런던사무소장을 거쳤고 이성조 한화손보 감사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부 국장을 지냈다. 삼성생명 문태곤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원 비서실장, 감사원 전략감사본부장,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감비서관 등 감사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흥국화재 김시곤 상근감사위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감사관과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출신이다. 한화생명 정택환 상근감사위원은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

임했다. 일반 기업 출신이 상근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곳은 롯데손해보험 한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주주총회 후 임기가 만료된 감사 8명 중 재선임된 사람은 이성조 한화손보 감사, 정택환 한화생명 감사, 장명식 현대라이프생명 감사, 김영배 KB생명 감사 등 4명이다. 지난해 7월 선임된 김영배 감사를 제외하곤 모두 최초 선임 시기가 2009~2011년으로 재직기간이 3년이 넘는다. 장 감사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부국장을 역임한 인물로, 2006년 독실자생명(현대라이프생명 전신) 시절부터 재선임 임기 2년까지 채우면 10년 동안 현대라이프생명 감사로 활동하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조동희 국민통합 총회장을 선임 감사로 선임했다. 조 감사는 목포상고 출신으로 DJ정부 시절인 2000~2003년 건강보험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지냈다. 2004년에는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곧이어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꾸는 등 '절세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험사들은 정부부처 및 금융당국 출신 상근감사위원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 관행이 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선이 업계에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될 때, 감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김구귀 기자 kkk@

보험 상장사 정부부처 및 금융당국 출신 상근 감사위원 현황	
삼성생명	한화생명
이름: 문태곤 출생: 1957.9.10 학력: 경북대 행정학-버밍엄대학원 행정학 석사-성균관대학원 박사 주요경력: 감사원 비서실 실장, 감사원 전략감사본부 부부장,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감비서관 감사원 기획총괄관리실 실장, 감사원 제2사무차장	이름: 정택환 출생: 1955.12.20 학력: 서울대-프랑스 파리1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서기관),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부이사관), 통계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통계연수부장, 통계청 통계기획국장,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재정경제부 주OECD대표부 참서관,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한화생명 비상임 고문
재직기간: 2013.6 임기만료: 2016.6	재직기간: 2014.3.21 임기만료: 2017.3.20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름: 조병진 출생: 1955 학력: 건국대 경영학-美 덴버대 회계학 석사 주요경력: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 국장, 보험연수원장	이름: 나병현 출생: 1955.5.17 학력: 고려대 정치외교학-뉴욕보통대학-고려대 경제정책학 석사 주요경력: 금융감독원 공보실 국장,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런던사무소장
재직기간: 2013.6.7 임기만료: 2016.6.6	재직기간: 2009.6.12 임기만료: 2015.6.7
동부화재	LIG손보
이름: 안형준 출생: 1956.11 학력: 고려대 무역학과 주요경력: 보험감독원 선임, 재무부 보험국에르그다을 손해보험 상근감사	이름: 박병명 출생: 1954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경력: 금융감독원 보험감독, 국장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교수, 전북은행 상임감사
재직기간: 2013.6.14 임기만료: 2016.6.14	재직기간: 2012.6 임기만료: 2015.6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이름: 노승방 출생: 1955 학력: 한국외국어대 주요경력: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장,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연구위원	이름: 이성조 출생: 1954.7 학력: 한국외국어대 국어교육학과 주요경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부 국장, 제일화재해상보험 감사
재직기간: 2013.6 임기만료: 2014.6	재직기간: 2010.2.4 임기만료: 2015.2
흥국화재	
이름: 김시곤 출생: 1955.3 학력: 육군사관학교 전자공학 주요경력: 감사원 부이사관,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감사관,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부장	
재직기간: 2012.6.13 임기만료: 2015.6	

카드사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

임기제한 없어 관료출신 '꿀보직'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피야 감사 책임 물어야' 여론도 금융협회에는 아직도 '무혈입성'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이나 공무원 출신 감사위원을 선호하는 편이다. 일각에서 카드사 감사 역시 퇴직 관료의 뒷돈을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올 초 약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KB국민, 롯데, NH농협)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재직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임명된 김성화 신한카드 상근감사는 대표적 금감원 출신 인사다. 그는 한국은행 임행은 시작으로 금감원 기획조정국 수석전문역, 은행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 등을 비롯해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감사의 임기는 오는 2015년 8월 26일까지다.

KB국민카드의 경우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을 지낸 서문용채 감사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됐다. 서 전 감사의 뒤를 이어 새로 선임된 인사는 주승노 상근감사다. 주 감사는 감사원 행정지원실장을 비롯해 감사청구조사국장, 사회복지조사국장, 공직감찰본부장 등 감사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태문 삼성카드 감사도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국장 출신이며 진상근 우리카드 상근감사는 옛 재경부 출신으로 예금보험공사 이사를 역임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상근감사 1명을 포함해 사외이사 2명이 속해 있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임기는 2~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

지만 최장 임기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일부 카드사는 임기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금감원 출신의 금융사 감사로의 진출이 금지됐지만 기존부터 감사직을 수행했거나 타 기관에서 직책을 맡아온 인사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특히 금융사를 직접 감독하는 금감원 간부가 퇴직 후 바로 해당 금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의 고위직으로 가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에서 은행 감독업무를 하던 김영대 부원장보는 2012년 3월 은행연합회 부회장으로 갔다. 은행과 카드사 등을 감독하는 직책에 있었던 이기연 부원장보도 최근 카드·캐피탈사 모임인 여신금융협회의 부회장으로 이동했으며 정영여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역시 금감원 출신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금감원 간부들이 퇴직 후 2년 안에 민간 금융사로 갈 때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위탁으로 자율규제를 하는 금융협회로 갈 때는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이 이 같은 나눠먹기 구조를 정착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앞으로는 민간 금융사로 직접 진출하지 못하게 된 경제관료들이 협회를 거쳐 민간으로 이동하는 형식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 기업뿐 아니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협회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민지 기자 kimj@

나에게 딱 맞는 슈트처럼 영양제도 스마트한 비맥스로

독심자

업무피로, 비맥스로 스마트하게

SMART 비타민제

비맥스 정

업무피로를 이기는 스마트한 방법, B-maxTab.

피로 해소를 위한	건강을 위한
비타민 B	UDCA와 메티오닌
남성 건강에 좋은 미네랄	활성형 비타민
마그네슘과 아연	벤포티아민

SMART 비타민제 B-max는 결핍될 수 있는 비타민B와 C의 섭취량을 보충해 주고, 건강을 위한 UDCA와 메티오닌을 함유하고 있어 당신의 삶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광고심의회: 1152-0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전직원 1만시간 사회공헌... '국민의 카드' 거듭난다

〈3월17일~5월16일 사회공헌 집중 실천기간〉

* KB국민카드

영업재개에 들어간 KB국민카드가 불신을 없애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회공헌 집중 실천 기간을 운영하는 등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카드로 거듭나겠다고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있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교훈 삼아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업무를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김 사장은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배운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객 신뢰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28일 강남지점을 시작으로 전국 25개 지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전 임직원 참여...사회공헌 1만 시간 달성 = KB국민카드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집중 실천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KB국민카드는 '직원 및 직원 가족 사랑의 빵 나눔', '신입사원 장애인들과 봄나들이', '카드모집인 어르신 급식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카드 모집인을 포함해 1200여명의 임직원이 총 1만673시간 동안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21일에는 사랑나눔 활동이 결실을 맺어 봉사활동 참여 시간에 따라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한 기부금 3000만원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 인근 지역의 학업 중인 청소년 등 저개발 국가의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지난 두 달간 보여 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희망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외계층과 함께한 '두 달간의 기록'=KB국

사랑의 빵·장애인들과 봄나들이... 두달 동안 다양한 이웃사랑 실천 영업재개하며 신뢰회복 팔 걷어 김덕수 사장 "우리 자신 변화해야"

민카드 직원과 신용카드 모집인 60여명은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 점심식사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KB국민카드는 수도권 소재 영업점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들과 함께 5월 중순까지 매주 수요일 20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B국민카드 신입사원들은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소외된 이웃과의 사랑 나눔으로 시작했다. 신입사원 35명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지난 3월 15일 강

남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는 지적 장애인들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신입사원과 장애인들이 한 조를 이뤄 도시락 만들기, 놀이공원 체험 등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평소 나들이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KB국민카드 직원들은 또 지난 4월 5일 주말을 맞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직업재활센터에서 직원과 직원 자녀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지난 3월부터 매주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 만든 500여개의 빵을 인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송파구 소재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아동이 함께하는 드림 데이 캠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밀알복지재단과 연계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속 다문화가

정 어린이들은 임직원들과 짝을 이뤄 경제 뮤지컬 관람, 소망관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KB국민카드는 4대 사회공헌 테마(청소년·노인·환경·글로벌) 중 글로벌 분야에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직업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420여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직업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은 혈액 재고량 부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랑 나눔 헌혈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임직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사랑의 온기를 나눴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모은 150여장의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 병마와 싸우고 있는 백혈병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백혈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KB국민카드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등 1200여명의 임직원은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1만673시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직원 및 직원 가족 사랑의 빵 나눔', '신입사원 장애인들과 봄나들이',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 나눔 헌혈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투데이 교육센터'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락사업실: 02-799-2683
-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셋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1, Yeouidaebang-ro 62-gil, Dongjak-gu, Seoul, Korea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청소년 환경보호 노인복지 글로벌 Youth Environment Silver Global

4대 테마 'Yes, for Good'

KB국민카드는 청소년, 노인복지, 환경, 글로벌을 사회공헌의 4대 핵심 테마로 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4대 테마의 약자를 활용해 'YES, for Good'이라는 슬로건도 정했다.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체계적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 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국민카드의 우선 청소년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 사업을 핵심 사회공헌 분야로 인식해 적극 진행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이자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될 청소년들에게 합리적 소비 마인드를 심어주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1년 서울·경기지역 45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4000여명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임직원 320여명이 강사로 참여해 서울·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60개 학교 98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도 300여명의 임직원이 서울·경기지역 70개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 9000여명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한 학급당 임직원 강사 2명이 참여해 밀착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교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수업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교육자료 활용 및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내고 강사 위주의 일방적 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적용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금융경제 기초 △올바른 용돈 관리 △신용과 합리적 소비생활 등, 중·고등학생은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이해 △금리와 환율 △신용과 합리적 소비생활 △금융보도게임(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별 맞춤형 학습) 등이다.

청소년 분야 외에 환경 분야에 있어서

도 다음 세대에 보다 쾌적하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B 금융지주의 '탄소중립의 숲'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참여, 기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상응하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계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계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인 '청계천 환경 지킴이' 봉사활동에 임직원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KB국민카드 본사 주변 나무의 고사 예방을 위한 '도림복지 불주기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일깨우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문화재 문묘 가구기' 봉사활동을 위해 상견관 문묘를 방문, 문화재 환경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영업점 및 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500여 가구를 방문해 쌀, 생필품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 역할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에는 전국 25개 영업점 200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 콜센터의 전화상담 재능을 활용해 전국의 독거노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회씩 안부전화를 드리는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위해 다문화가정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립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다문화 국가 페스티벌인 '필리핀의 날', '태국의 날', '베트남의 날'을 후원해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보공유 및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2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Dream Day Camp'를 진행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직업 체험 및 문화 탐방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



‘주식매수청구권’ 다음카카오 합병 변수되나

반대 청구권 쏟아내면 무산될 수도... 2009년 현대모비스·오토넷 사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통합 법인인 '다음카카오'의 앞길에 주식 매수청구권이 변수로 떠올랐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과 카카오는 지난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계약을 맺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합병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합병 결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양사의 계약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다음과 카카오가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의 상한선이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으로 제시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다음의 최대주주는 이재웅 전 대표(13.67%)다. 2대 주주인 KB자산운용(12.19%)을 포함한 5% 이상 주주의 지분율은 44%가 넘고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40% 이상이다.

다음의 주식 매수 예정가는 7만3424원인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왼쪽)와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데 합병 반대 기준금액(2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는 272만주에 달한다. 이는 다음의 현재 발행주식(1356만229주)의 20%에 해당한다.

주요주주의 절반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소액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이다. 지난 2009년 현대모비스와 오토넷의 합병 시에도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나와 합병이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 최근 한솔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막은 것도 주식매수청구권의 힘이였다.

일단 2대 주주인 KB자산운용은 투자 목적으로 다음의 지분을 보유한 만큼 합병 기간을 틈 타 차의 실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의 주가가 주식매수 청구가격(7만3424원)을 밑돌 경우 차익을 노리고 반대의사를 밝히는 소액주주들이 대거 쏟아질 수도 있다.

카카오는 주식매수 예정 가격으로 11만3429원을 제시했다. 합병 반대 기준금액(1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는 88만1000주 수준으로 발행주식(2699만6580주)의 3.26%에 불과하다.

양사는 8월 12일부터 임시주주 총회가 예정된 전날인 8월 26일까지 반대 주주의 사를 받을 계획이다. 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다.

송영록 기자 syr@

펀드매니저당 펀드수 적은 회사 순위

회사명	운용매니저	펀드수	펀드매니저당 펀드수
KB자산운용	28명	145개	5개
삼성자산운용	43명	269개	6개
한국투자증권	36명	249개	7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8명	259개	9개
미래에셋자산운용	43명	441개	10개

펀드매니저 운용부담 가장 적은 곳은

KB자산운용, 1명당 5개 관리 '최소'... 미래에셋 10개

펀드 기준 자산운용사 상위 5곳 중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가 가장 적은 곳은 KB자산운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KB자산운용은 145개의 펀드를 28명의 매니저가 운용하고 있다. 펀드매니저 한 명당 펀드 5개를 관리하는 셈이다. 이는 금투협에 공개된 54개 기업의 평균치인 4.4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2위는 삼성자산운용으로 43명의 펀드매니저가 1인당 각 6개씩 총 269개를 운용하고 있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가 각각 7개와 9개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6명의 매니저

가 249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28명의 매니저가 259개의 펀드를 관리하고 있다.

팔체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차지했다. 가장 많은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41개의 펀드를 43명의 펀드매니저가 운용해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가 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석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펀드를 선택할 때 회사의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하고 있는 펀드 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매니저 한 명당 운용하고 있는 펀드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조언했다. 조승에 기자 sysy@

김범수, 1조 육박... IT 주식부자 4위에

(카카오 의장)

우회상장펀 주식가치 9664억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결정으로 김범수(48) 카카오 의장이 IT 부자 순위 4위에 오르게 됐다. 김 의장은 합병회사 상장 후 '주식부자 1조원 클럽'에 바로 진입할 전망이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으로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하면 보유 주식 가치가 9169억원으로 30~40대 신형 IT 주식부자 순위 4위에 오르게 된다. 이는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808만3800주에 합병가액 11만3429원을 곱한 수치다.

여기에 김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까지 490억여원을 합치면 김 의장의 주식재산은 9664억원이 된다. 김 의장의 주식가치는 상장 후 주가 상승 등으로 1조원을 훌쩍 넘어 2~3위와 순위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자수성가형 IT 주식 부자 1조원 클럽에는 3명이 포함됐다.

3040 IT주식부자 순위 *출처: 재벌닷컴(26일 종가 기준, 카카오 주식은 상장예정 가격 반영)

순위	성명	출생년도(연령)	성별	직위 및 관계	주식재산
1	김정주	1968(46세)	남자	NXC 회장	17,392
2	이해진	1967(47세)	남자	네이버 이사회의장(CSO)	11,908
3	김택진	1967(47세)	남자	엔씨소프트 사장	11,927
4	김범수	1966(48세)	남자	카카오 이사회의장	9,664
5	이준호	1964(50세)	남자	NH엔터테인먼트 회장	9,589
6	권혁빈	1974(40세)	남자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5,859
7	박관호	1972(42세)	남자	위메이드 이사회의장	3,740
8	이재웅	1968(46세)	남자	다음커뮤니케이션 설립자	1,448
9	송병준	1976(38세)	남자	게임빌 사장	1,166
10	이정웅	1981(33세)	남자	선데이토즈 대표이사	1,155

1위는 김정주(46) NXC 회장이다. 김 회장의 주식재산은 1조7392억원이다. 보유 주식 가치가 1조1908억원인 이해진(47) 네이버 이사회의장(CSO)은 2위를 차지했다. 게임 업계 1세대인 김택진(47) 엔씨소프트 사장이 주식재산 1조1927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관호(42) 위메이드 이사회의장은 3740

억원의 주식을 보유해 40대 신형재벌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위메이드는 카카오 지분 5.43%(150만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소식에 전일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재웅(46)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는 보유 주식 가치가 1448억원으로 8위에 올랐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지난 26일 연세대학교에서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사장(왼쪽)과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이 '100세시대 대대손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연세大와 유산기부 MOU 체결

우리투자증권은 연세대학교와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및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유산기부 업무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세대학교에 금전 및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유산기부의 방법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은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대대손신탁'을 활용해 보다 쉽게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탁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생전에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연세대학교로 기부자의 유지에 따라 기부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의 기부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철 스크랩' 구조화 금융 성공 골든브릿지증권 600억 조달

에너지·석유화학·자원분야에서 특화를 선언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증권)이 미개척 특새시장을 찾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골든브릿지증권은 제주도 내 철 스크랩 구조화금융에 성공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올린 성과로 철 스크랩 분야에서만 약 6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철 스크랩은 골든브릿지증권이 특화 전문화하겠다고 밝힌 분야로 국내 철 스크랩 구조화금융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유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골든브릿지증권은 시장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 시장도 공략했다. 제주도는 지역적 특수성과 차별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수익률은 타 지역에 비해 2-3배 이상 월등히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김호성 골든브릿지증권 기업금융팀 부장은 "전통적인 자본시장 영역에만 머물며 과도한 출혈경쟁이 증권업계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시장을 발굴하고 설계하면 미개척된 새로운 특새시장을 열 수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대체신탁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011년 양돈 신탁투자를 업계 최초로 시도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인호 기자 kangjh@

리더가 사라진 세계 | 이언 브레머 지음 | 값 22,000원 | 문의 070-7606-7405

글로벌 리더가 사라진 G제로 세계, 당신은 승자인가 패자인가?

금융위기에 이어 세계를 강타할 위기가 시작되었다!

G0(G제로)시대... 한국의 승부 전략은 균형잡자다. - 조선일보
국제질서의 미래를 예측할 때 『리더가 사라진 세계』는 반드시 인용해야 할 책이다. - 중앙일보
저자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국가와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 - 동아일보
이 책은 까마득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독자에게 시야를 틔워주고 방향을 잡아준다. 거시적인 시각을 담은 책이지만, 헛터마다 국가의 사정을 자세하게 분석해 미시적인 접근도 이끌어준다. - 매일경제
저자는 『리더가 사라진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진공상태를 'G제로(zero)'라고 부르면서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G제로 시대'에 벌어질 혼란과 갈등, 국가와 기업들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 한국경제

▶ 세계 최고의 위기 컨설팅 업체 유리아시 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 그는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 초청받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언이 그가 쓴 『리더가 사라진 세계』는 다가올 거대한 위기에 먼저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루한 박스권 증시... 영업익 개선기업 노려라

2분기 실적개선 여부 관련 증권·IT업종 영업익 늘듯

국내 증시가 장기간 박스권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외국인 수급여력이 있는 종목에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28일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내외 환경 악화로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기준 5.9%까지 감소했다.

올해 영업이익률 컨센서스(시장 예상치 평균)는 현재 6.8%로 예상되고 있지만 과거 3년 연속으로 예상치 대비 1%포인트 이상 하향조정됐던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 전망이다.

실제로 당장 2분기 실적 전망치만 하더라도 불과 한달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달 초 FN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을 추정한 12월 결산법인 140개의 2분기 예상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 9일 현재 영업이익은 총 29조4482억원으로 지난 4월 초에 비해 4.3% 감소한 것이다. 매출액도 417조4788억원으로 지난달 초에 비해 0.6% 줄었고, 순이익은 22조7464억원으로 5.2% 감소했다.

이처럼 시장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기업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

상장사 2분기실적 컨센서스
단위: 억원, %

종목	2014년 2분기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대우증권	1,557.00	387.20	282.23	19.44	929.79	290.52
원익IPS	1,174.50	161.00	118.01	48.17	416.79	흑전
한국금융지주	1,956.00	625.90	438.24	19.66	310.29	219.16
블루콤	528.33	107.67	66.00	193.29	307.14	102.65
컴투스	291.67	75.33	65.86	43.35	272.19	102.05
삼성증권	2,100.00	565.67	396.23	9.92	267.32	295.09
LG상사	30,235.59	413.49	363.93	-3.15	178.65	257.78
뷰익스	199.20	36.54	30.74	39.78	168.92	218.96
OCI	8,142.08	465.08	283.27	13.76	162.47	흑전
키움증권	669.50	233.80	173.67	28.32	154.07	135.66

자료: 에프앤가이드(DataGuide)

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와 실적이 모두 개선된 종목의 주가는 평균 182.7% 상승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인 78.6%를 웃돌았던 것.

이에 시장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률 개선 기업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된 만큼 2분기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주가도 움직일 것이라 분석 때문이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예상한 2/4분기 대표 실적개선 업종은 증권업종이다. 대우증권(929.79%), 한국금융지주(310.29%), 삼성증권(267.32%), 키움증권(154.07%)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이 외에도 원익IPS, 블루콤, 컴투스, LG상사, 뷰익스, OCI, CJ대한통운, OCI 머티리얼즈, 한화케미칼, 한국항공우주 등이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영 기자 moon@

‘대형株’로 길 트는 외국인

IT·자동차·은행 등 매수

코스피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주요 업종과 종목별로 압축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밀려났지만 IT, 자동차, 은행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하반기 수익성 개선 전망까지 더해지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코스피지수는 12.72포인트(0.63%) 하락한 1997.63으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에 나서고 있지만 가격 부담에 따른 펀드 환매 물량 출하가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 모멘텀을 등에 업고 추가가 상승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당분간 기간 조정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 분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6051억원, SK하이닉스 4546억원, 한국전력 2588억원, 기아차 1658억원, 신한지주 935억원 등을 쏟아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이익 개선 전망이 뒤따르면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선 부근에서 매물 소화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외국인 은행주 누적 순매수 규모

단위: 백만원

기간: 2014년 5월 2일~2014년 5월 27일

삼성전자	605,122	SK텔레콤	62,459
SK하이닉스	454,679	LG전자	61,267
한국전력	258,883	KT&G	60,043
KODEX 200	177,447	KB금융	58,807
기아차	165,864	호텔신라	50,353
삼성화학	115,026	GS건설	49,103
신한지주	93,595	롯데쇼핑	44,315
오리온	90,085	엔씨소프트	44,014
KT	78,372	고려이연	38,927
POSCO	78,291	원익IPS	34,785

출처: 한국거래소

판단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상승모멘텀이 한 층 강화될 것이며 펀드매력 개선 업종과 종목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지수는 다시 연중 최고치 경신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외국인이 개별종목 순매수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은행주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채권의 상황에 따른 가격제책(Repricing)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상승 반전하고 대

중금리채권의 상황은 하락 안정화될 것”이라며 은행주에 대한 비호낙대전망을 내놓았다.

하정철 기자 jcha@

각종 재난사고에 안전관리株 부상

각종 재난사고에 이어지면서 안전관리株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방관련 법을 강화할 움직임이 보이며 소방방재 관련 업체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소방설비 관련 대표 상장사로는 한창이 있다. 이 회사는 매출의 70%를 소방설비 유통에서 올리고 있다. 일반 건물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는 물론 소화설비 시스템 유통도 맡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등에 소방설비를 공급하는 등 해외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파라텍도 소방 관련주로 눈길을 끈다. 이 회사의 지난해 파라텍의 전체 매출액에서 소방설비시공 부문 매출액은 약 42.7%에 달한다. 이밖에 스프링클러(자동방수설비) 헤드류 등의 소방기구 매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단계별로 구축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하면서 관련주도 꿈틀거리고 있다. 안전행정부 부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는 7월 말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검증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은 날 코스닥시장에서 리노스는 전거래일보다 1.41%(40원) 상승한 2875원에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전날 364만주에 비해 1012만주를 기록했다.

송영록 기자 syr@

수익률 44%... 짹짹한 투자대안 ‘공모株’

한국정보인증, 상승률 195%로 가장 높아

지난해 1월 이후 새로 상장된 공모주들의 수익률이 평균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새로 상장된 42개 종목의 공모가와 27일 종가(현재가)를 비교한 수익률은 평균 44.0%로 집계됐다.

공모가 기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195.0%를 기록한 한국정보인증이 차지했다. 엑세스바이오(164.4%), 이지웰페어(159.1%), 아이센스(157.9%), 인터파크 INVT(155.9%), 인트로메디(146.7%) 등이 뒤를 이었다.

33개 종목의 현재가가 공모가를 웃돈 반

면 미동전자통신(-66.0%), 지디(-56.3%), 우리이엔엘(-45.5%), 원팩(-34.1%) 등 9개 종목은 공모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내었다.

지난해 1월 이후 코스피에 상장된 4개 종목은 모두 공모가보다 현재가가 높았다.

공모주는 고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청약경쟁률이 보통 수백배대에 달해 개인이 실제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적다.

올해 2월 코스닥에 상장된 오이솔루션은 청약경쟁률이 1253대 1을 기록했으며 이를 비롯한 2개 종목이 1000대 1을 넘었다. 34개 종목은 세자릿수 이상의 경쟁률

을 나타냈다.

청약경쟁률과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268를 기록했다. 청약경쟁률이 높을 종목이 반드시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는 아닌 수준이다.

공모가 기준 수익률은 44.0%로 높았지만 거래 첫날 시초가를 현재가와 비교한 수익률은 0.77%로 거의 제자리에서 머물렀다. 조사대상 종목의 절반인 21개 종목의 현재가가 시초가보다 떨어졌다.

가래인(126.3%), 인트로메디(120.9%), 라이온켄텍(88.7%) 등은 시초가보다 2배 정도 주가가 뛴 반면 지디(-68.7%), 미동전자통신(65.0%), 세호로보트(-48.5%) 등은 시초가가 반 토막 나기도 했다.

조승에 기자 sysy@

우리證, 희망퇴직 412명 확정... 전체 14%

NH농협증권과 합병을 앞둔 우리투자증권이 희망퇴직자 규모를 총 412명으로 결정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4-21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재개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41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5월말 기준 우리투자증권 직원 2973명의 13.8%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7명 중 1명꼴로 회사를 떠나는 셈이다. 당초 우리투자증권은 300~400명 수준을 예

상했다.

앞서 26일 NH농협증권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전체 직원(858명)의 23%인 196명의 희망퇴직자 명단을 확정 지었다.

합병을 앞둔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대규모 희망퇴직이 마무리되면서 출범을 앞둔 'NH우투증권'의 전체 인원은 3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희망퇴직 시행 전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직원을 단순 합산한 3800여명에서 16%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송영록 기자 syr@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 용기, 당신에게는 있는가?”

말 못 할 콤플렉스와 우울로 인생이 괴로운 사람을 위한 자존감의 심리학

나답게 살아갈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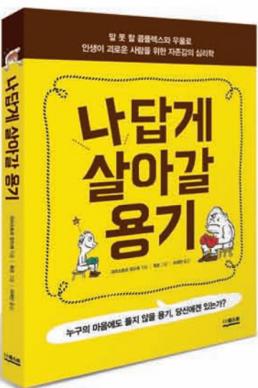
Je Depasse Mes complexes et mes deprimes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거절 못하는 나, 쫓대 없는 당신, 남의 인정에 연연하는 우리... 콤플렉스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회복 매뉴얼

- 늘 할 말을 못해 당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위한 자존감 따라잡기
-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예민한 현대인을 위한 불안감 떨쳐내기
- 열등감 조장하는 사회에서 생김 대로 살기 위한 자기사랑의 기술
-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우울해서 스트레스 받는 '기본부전증' 해소법

문의: 02-332-0931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움 | 위조 그림 이세진 옮김 | 더퀘스트 | 값 12,000원

안전과 초과수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고수들의 필살기, 권리분석

저는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데요!

경매 고수 신정현의 초베스트셀러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2판! 레알 생초보의 권리분석 실전편

내 집 마련부터 수익형 부동산까지, 경매 초보와 고수를 가르치는 결정적 차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극적인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권리분석이 까다롭거나 복잡하면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들고,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 수익이 늘어 나게 된다.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는 고수들의 치밀한 권리분석 노하우를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한 독자들이 배운 지식을 당장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실전문제를 통해 복습하고, 고수들의 Q&A를 통해 경매의 숨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문의: 02-2128-8775



신정현 지음 | 한빛비즈 | 416쪽 | 값 18,500원

스위트밀, 강산 바뀌고 첫 흑자... 주인도 바뀌나

10년만에 영업이익 9200만원 기록
코오롱인더 “중장기적 매각 고려”

코오롱 손자회사이며 코오롱인더스트리 자회사인 스위트밀이 10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스위트밀이 흑자로 돌아서자 그룹측은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 자회사 스위트밀은 지난해 영업이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0억4500만원, 당기순이익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 매출액보다 9% 증가했으며 영업손실 1억6800만원, 순손실 2억7600만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스위트밀은 자산총계 30억원, 매출액 60억원 규모의 비교적 작은 식품제조업체다. 슈크림으로 유명한 비어드파과, 커피전문점 스위트 카페, 치즈케이크 전문점 티오글라톤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 지난 2003년 설립 후 10년 동안 적자를 못 벗어났다. 2008년 유상증자, 2010년 CB를 발행해 자금을 수혈 받았지만 영업손실,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내부거래 비중을 늘려 규모를 키우고 원가를 줄이자 적자 폭이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말 기준 자본금 35억원에 자본총계 -1억55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실적이 개선됐지만 사업확장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이 회장



이 2013년 1월까지 스위트밀 지분 19.97%를 보유했는데 지난해 골목상권 침체 논란이 빚어지면서 지분 전량을 코오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꽃과어린왕자'에 넘겼다. 이 회사가 스위트밀 지분을 재단에 넘길 당시 코오롱 그룹은 합작회사인 무기노호와 상의해 사업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회사측은 스위트밀 매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매각을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관리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원가 절감에 힘썼다”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재테크 내조9단’ 애경그룹 안주인 AK홀딩스 주식 매입

7개월만에 150% 뛰어

공시 돋보기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부인 홍미경 몽인아트센터 관장이 AK홀딩스 주식을 매입했다. 투자 7개월만에 주가는 150% 가량 상승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관장은 지난 27일 AK홀딩스 주식 114주를 매입했다. 홍 관장이 보유한 AK홀딩스 주식은 총 1564주(지분율 0.01%)다.

홍 관장이 지분을 처음 확보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4만850원이었던 주가는 27일 현재 6만2900원까지 경중 뛰어올랐다. 약 153%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홍 관장의 지분 매입에는 회사의 성장성이 커지면서 주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AK홀딩스는 자회사 제주항공과 새로 연결자회사로 편입한 애경산업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월과 4월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면서 장기 성장성이 강화됐다.

또 AK홀딩스는 애경산업의 지분 30%를 249억원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50.1%로 끌어올리며 실적 개선도 전망된다. 홍 관장의 지분 매입을 투자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홍 관장의 지분 매입을 본격적인 2세 경영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홍 관장의 지분이 소량이어서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형석 부회장의 어머니 장영신 회장은 AK홀딩스 지분 9.27%를 보유하고 있다. 채 부회장은 17.37%를 갖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가치투자’ 한국투자밸류 KSS·유니퀘스트 담았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하 한국밸류운용)이 동시에 코스피 상장사 2곳의 지분을 취득하며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밸류운용은 지난 23일 KSS해운 주식 58만5199주를 주당 1만4106원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규 보고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추가로 60주를 주당 1만4150원에 장내 매수하며 한국밸류운용의 KSS해운 지분은 5.05%가 됐다.

한국밸류운용 측은 “이는 일임계약 보유분 31만2109주(지분율 2.69%)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밸류운용이 KSS해운에 투자한 금액은 83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한국밸류운용은 23일 유니퀘스트 주식 67만9110주를 주당 1만2255원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규 보고했다. 이어 26일에는 추가로 200주를 주당 1만3000원에 장내 매수하며 한국밸류운용의 유니퀘스트 지분은 5.04%가 됐다.

한국밸류운용 측은 “이는 일임계약 보유분 47만7120주(3.54%)를 포함한 것”이라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ngih@

삼기오토모티브, 中 현지법인 설립

산동기차배전에 30억7200억 출자... 현대차 생산확대 대응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삼기오토모티브가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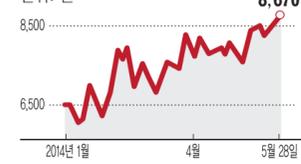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삼기오토모티브는 산동삼기기차배전유한공사에 30억7200만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현대기아차 중국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중국 산동성 일조시에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 지역에는 현대차그룹 변속기 전문기업인 현대과워텍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삼기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변속기 부품 및 엔진부품 전문업체로, 특히 더블클러치변속기(DCT) 부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DCT는 두 개의 클러치를 통해 수동 변속기의 변속을 자동 조절하는 변속기로, 연비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기오토모티브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폭스바겐 및 아우디, 현대차그룹에 DCT 핵심 부품인 밸브바디(Valve body)를 본격 납품할 예정이다. 삼기오토모티브는 지난해 3월 중국 폭스바겐 천진공장

삼기오토모티브 주가 추이



에 올레부터 5년간 552억원 규모의 DCT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아우디와도 8년간 1435억원 규모의 DCT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성원 메리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폭스바겐, 아우디와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 완성차 업체로 매출처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김미정 기자 mj@

영흥철강, 자동차 부품소재 업체로 변신

와이어로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영흥철강이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중장기 성장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흥철강은 IT와이어(Induction Heat & tempered Wire)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자동차 부품 소재 업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임영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영흥철강

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주력사업장인 경남 창원에서 충남 보령으로 이전하고 승용차용 냉간코일 원재료인 IT와이어의 생산능력을 갖추면서 자동차 부품 소재 업체로 변모하고 있다”며 “생산능력은 월 800톤으로 오는 7월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냉간코일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20%로 사용비율이 낮으나 차

량 경량화가 중요해지면서 사용비율이 확대될 것”이라며 “도요타의 자회사인 Chuho Spring과 기술 제휴 및 업체등록이 완료되면서 일본업체 납품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연재 동양증권 연구원은 “영흥철강의 올해 매출액은 2635억원, 영업이익은 108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IT와이어 매출 본격화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mj@

아이베스트투자, 태경산업에 베팅

한범희 대표 특수관계인에 추가...지분 5.42%로 증가

지난 1월 태경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며 처음으로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린 아이베스트투자가 최근 추가로 지분을 매입, 향후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범희 아이베스트투자 대표는 지난 26일과 27일 태경산업 주식 1만5300주와 2만4670주를 각각 주당 5604원, 5578원에 장내 매수했다. 이와 함께 아이베스트투자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태경산업 주식 3만690주를 장내 취득했다.

이로써 아이베스트투자는 특수관계인에 한 대표를 추가하며 태경산업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5.17%에서 0.25%p 증가한 5.42%가 됐다. 이 기간동안 아이베스트투자와 한 대표가 지분 매입에 들인 금액은 3억6579만원 가량이다.

이와 관련 아이베스트투자 관계자는 “단

태경산업 주가 추이



순 투자 목적으로 태경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에 한 대표도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인에 추가돼 공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 업황 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태경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인호 기자 kangih@



ADOLFO DOMINGUEZ

Hyundai Department Store: Appujeong 3F 02.3438.6059 · Mokdong 3F 02.2163.1345 · Daegu 4F 053.245.2431
www.adolfodominguez.com

송해 선생님이 도맡아주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